서울大學校 同窓會報

同窓會 指標 ①參與하는 同窓會 ②努力하는 同窓會 ③榮光스런 同窓會

發行人 金在淳
編輯人 鄭宗澤
印刷人 金暎宰

發行所
서울大學校總同窓會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18-2
☎ 702-2233~5 · FAX : 703-0755

銀行지로番號 7500875
對替口座 010017-31-0621565

【1】月 刊 [1976. 4. 13 登錄番號(서)라-137號 / 1988. 11. 9 第3種郵便物(나)級認可]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4년 10월 1일 第199號

金泳三大統領, 본회 임원등 청와대 초청

■본회 임원진 · 모교 보직교수 청와대 예방= 金泳三대통령은 오찬후 참석자들과 함께 청와대 본관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冠岳春秋

母校수준 세계 8백위밖

서울大출신의 첫 文民대통령인 金泳三대통령은 지난 9월10일 金在淳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을 비롯한 동창회 관계자 6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베풀면서 모교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金鍾云총장은 우리의 국가목표가 선진국 진입과 남북통일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선진국 진입을 위한 국가경쟁력 강화는 大學의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에 달려있다고 역설했다. 金총장은 앞으로 서울大를 대학원 중심의 국제수준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관계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며, 막대한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어 鄭宗澤총동창회 상임부회장은 서울大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수준의 대학이지만 국제대학 랭킹으로는 8백位 밖으로 밀려나 있다고 지적, 대학의 낙후성을 조속한 시일안에 탈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확실히 국립 서울大가 국제수준의 대학에 끼지 못하고 낙후와 정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 충격적이다. 이와같은 대학의 낙후성을 그대로 둔 채 국가경쟁력 향상이나 선진국 진입은 기대할 수 없다.

우리 대학이 당면한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학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때가 되었다고 여긴다. 우선 대학발전의 재원확보 방안이 구체화돼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여입학제」의 실시문제를 검토, 조속한 시일안에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 기여입학제로 들어오는 재원을 연구시설의 확충, 교수의 충원, 장학금 지급확대에 쓰는 경우 대학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美國등 선진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기여입학제를 우리라고 기피할 필요가 있겠는가를 곰곰히 생각할 시기가 되었다. 어차피 엄청난 私敎育費와 해외유학자금이 쓰여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 기여입학제로 교육의 숨통을 트는 것이 현명할지 모른다. 지나친 평등의식과 富에 대한 매도 분위기, 우물안 개구리식의 미숙한 국제감각으로는 대학의 획기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기여입학제는 정상적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定員外로 적정입학비율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기여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일정한 기준을 부여, 대학의 면학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기여입학제 실시외에도 기업 및 동창들의 대학기여가 활성화돼야 한다. 지금도 상당수준의 기여실적이 있으나 앞으로 더 활성화 되도록 대학의 경영책임자들과 동창회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것으로 여긴다. 앞으로는 대학의 총장, 학장들도 더욱 국제적인 경영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교수들도 연구활동을 강화, 자질을 높이고 가혹한 평가를 통해 도태되는 제도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 서울大를 국제수준의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의 평가제를 채택, 대학의 총체적 저효율 구조를 뜯어 고쳐야 한다.

학생들이 입학하기는 쉬워도 졸업하기는 어려운 대학主導의 교육을 활성화해야 할 듯 싶다.

얼마전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이 갈수록 뒤처져 泰國에도 밀렸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학, 정부, 기업등이 모두 정신을 차리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만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대학교육부터 국제경쟁력을 갖춰야 할 때다. 金泳三대통령이 교육대통령이 되기위해 우선 서울大의 현안문제부터 해결하는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林〉

1976. 4. 13 登錄番號(서)라-137號
1988. 11. 9 第3種郵便物(나)級認可
第199號

모교발전 대통령 확연한 의지표명

특별법등 별도조치 건의
재정지원·제도정비 시급

本會고문 金泳三대통령은 本會 金在淳會長을 비롯 총동창회 임원진과 관계자 및 母校 金鍾云총장과 주요보직교수등 89명을 지난 9월10일 청와대로 초청하여 도토리국수로 오찬을 함께하며 환담했다.

대통령은 초청동문들을 반갑게 맞이한 후 『사회각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문들을 위대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동문들을 오늘 만나게 되어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金회장의 예방사, 모교총장의 서울대 발전방안에 관한 건의, 鄭宗澤상임부회장의 회무보고에 이어 대통령의 인사 및 오찬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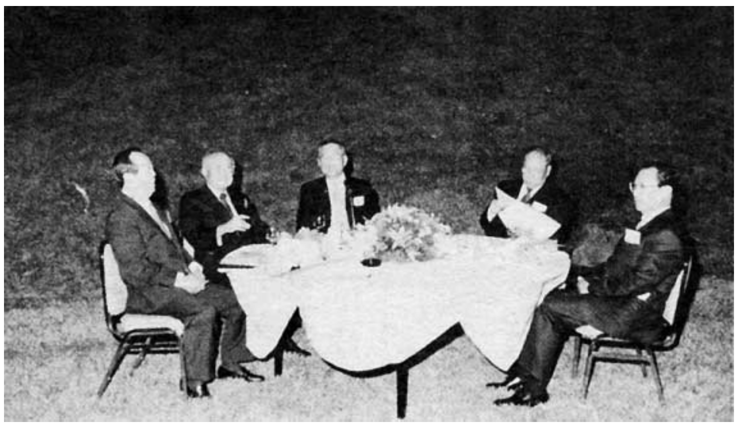
金在淳 會長은 禮訪辭에서 『지난 3월 청와대 방문시 「모교의 발전이 곧 조국의 발전」이라던 대통령 생각에 당시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하고 『이자리가 모교 발전계획의 실천을 위한 행동의 첫걸음이 될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金鍾云총장은 『모교가 국제수준의 대학원 중심의 대학이 되기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지원과 불합리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건의하였으며 鄭宗澤常任副會長은 『건전 재원마련을 하기 위해 서울대총동창회·국민신용카드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회무보고 한후 『현재 서울대는 시설면에서 세계 8백61등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특별법을 꼭 제정, 이를 타개해 줄것』을 金총장건의에 이어 다시한번 건의하였다.

金대통령은 인사말에서 모교에 대한 제반 문제에 관해 『이 중요한 시점에서 모교가 세계에서 8백위 밖이라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지금은 동문들이 대단히 힘이 있는 시점이기에 우리가 헌신적으로 모교를 구해보자 결심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분명한 것은 동문인 내 자신이 혼신의 힘으로 조국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최선을 다할것』이라며 『이런 본인의 노력에 동문여러분이 동참한다면 충분히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당부하였다.

이날 대통령은 준비된 『도토리국수의 맛이 어떠냐』고 물은뒤 외국정상들과 만찬때는 한식을 주로 내놓는데, 얘기때문에 미처 젓가락만 들고 먹지 못한 상대에게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맛있었다」는 대답이 나와 고소를 지은일도 있다고 소개해 좌중에는 폭소가 터졌다.

오찬은 청와대 본관에서 기념촬영을 끝으로 마쳤으며 본회는 모교미대교수로 올해 예술원상을 수상한 權純亨(55년 美大卒)同門의 作品인 磁器「結實」을 대통령에게 膳物했다.



▲지난 29일 개최된 총장공관 초청만찬.(좌로부터 鄭宗澤 상임부회장, 金在淳 회장, 金鍾云 총장, 崔主鎬 명예회장, 金商周 부총장)

임원진초청 총장공관만찬
모교발전 노력에 대한 감사

모교 金鍾云총장은 지난 9월29일 本會 金在淳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총장공관으로 초청, 만찬을 함께하며 모교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모교측에서는 부총장, 각단과대학장과 대학원장, 處·室長등 주요 보직교수들이 모두 자리를 함께 했으며 本會에서는 金회장을 비롯한 崔主鎬명예회장과 회장단, 상임이사 및 감사, 3개 특별과정 동창회장등이 참석했다.

총장공관 뒤뜰에서의 가든만찬 형식으로 약3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모임은 헤드테이블의 金총장, 金회장, 崔명예회장, 金商周부총장, 鄭宗澤상임부회장등을 비롯, 80여명이 참석했다.

金총장은 인사말에서 『청와대 방문을 주선하는 등 모교와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여러가지로 노력하시는 金在淳회장님 및 임원 여러분에 대해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통해 결실이 더욱 커졌으면 한다』고 모임의 동기를 밝혔다.

이어 金회장은 『동창회는 國籍을 불문하고 해외에 있는 동창들을 회원으로 포용할 것이며, 오늘 참석한 3개 특별과정 동창회장께 앞으로 많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한 후 『모교 발전기금 모금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올해 2백25명에게 지급한 1억5천만원의 장학금을 내년에는 2배로 증액해 더많은 후배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金회장은 또 『과학기술 연구능력의 제고를 위해 연구소와 교수에게 획기적인 연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本會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울대총동창회 국민신용제휴카드 안내를 위해 李淇鎔(63년 商大卒)국민카드 사장이 직접 참석, 설명했다. 특히 尹世榮(61년 法大卒) SBS회장은 동문들중 제1호 기업제휴카드를 신청했다고 소개됐고, 부임이후 총동창회 활성화 방안 및 행사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한 本會 李世震사무처장은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한편 이날 모임중 鄭宗澤상임부회장의 사회로 열린 제129차 상임이사회에서 이사확대 개편안을 통과시킴으로써 本會의 이사는 1만1천3백33명으로 확정, 선임됐다. 또 올해 예산보다 초과되는 경비는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 총회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참석자들은 徐友錫 音大學長의 선창으로 교가를 합창함으로 휘날레를 장식했다.

등산대회 10월23일
모교 대운동장 집결

本會가 母校개교기념일을 뜻있게 보내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親睦登山大會」가 오는 10월23일(일요일)개최된다.

동창회 친목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고 있는 올해 등산대회는 예년과 같이 冠岳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집결, 등록을 마친뒤 관악산 계곡을 넘어 안양유원지 윗쪽에 있는 農生大 수목원에서 개최되는데 참가 예상 인원이 5천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金在淳회장이 동창회장에 취임하면서 활성화의 폭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동창회 활동은 母校의 2천년대를 향한 발전계획이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는 시점에서 각계동문들의 「母校사랑」이 참여의 쪽으로 확대되면서 동창회 사업도 활발히 진척되고 있다.

사무처에선 금번 개최되는 친목등산대회를 원활히 치르기 위해 단과대학동창회에 동문들의 많은 참가를 종용했고 모교측에도 총장을 비롯한 학·처장, 교수들의 적극적인 참가를 위한 안내공문을 발송했다.

한편 등산대회를 위한 협찬금품이 각계 유력동문들로부터 답지하고 있어 사무처에서는 참가기념품과 도시락·酒飮料를 포함 많은 경품을 준비하고 있는데 추첨경품만도 5백여점에 달하는 등 同窓會史上 가장 성대한 등산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련광고 한단 참조〉

憲裁인사
전원동문

지난달 13일 金容俊(59년 法大卒)동문이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임명된데 이어 趙昇衡(57년 法大卒)、高重陽(59년 法大卒)、申昌彦(64년 法大卒)、鄭京植(65년 司大院卒)동문 등이 새로 재판관에 임명됐으며 金鎭佑(56년 法大卒)、金汶熙(59년 法大卒)동문이 재임명됐다. 이에 따라 임기가 남아있는 黃道淵(56년 法大卒)、李在華(58년 法大卒)동문을 포함, 정원 9席의 재판관을 동문이 전부 차지하는 개가를 올렸다.

「親睦 登山大會」, 母校 冠岳캠퍼스 大運動場 出發

—家族同伴의 하이킹코스…푸짐한 점심과 景品도 준비

同門및 同門家族을 모시고 「同窓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登山大會를 올해에는 10월 23일 거행합니다. 全同門이 한 자리에 모여 母校를 기리며 同門상호간의 親睦과 結束을 다지는 뜻에서 거행되는 이 行事에 참가동문의 數가 해마다 격증하여 이번 大會에는 5천여명이 參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을을 만끽하고 모처럼 學窓時節의 옛情을 되찾는 자리가 될 것이오니 부디 나오셔서 興겹고 보람있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회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참석자를 파악코자 하오니 전화나 팩스로 참석여부를 10월15일까지 꼭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參席있으시기 바랍니다.

= 案 內 말 씀 =

□日　　時:10월23일(일요일)오전9시출발
□集合場所:母校 冠岳캠퍼스 大運動場
□參加範圍:同門 및 同門家族
□連 絡 處:전화 702—2233·팩스 703—0755
□山行코스:冠岳山계곡→母校農大수목원(安養유원지윗쪽)
□參 加 費:없음
□提 供 物:도시락·酒飮料등
□景　　品:多量의 物品을 추첨으로 드립니다.

서울大學校總同窓會 會長 金 在 淳

주요기사 목차

• 冠岳春秋 ………………… 1면
崔青林(조선일보 편집국장)
• 동창회 소식 ………… 3~5면
• 느티나무 廣場 ………… 6면
李炯均(프레스센터 전무)
• 나의 길
韓道龍(홍익대 교수)
• 서울大 동문에게 告함 …… 7면
李大源(예술원 회장)
• 서울大를 빛낸 사람들
黃昌圭(삼성반도체 이사)
• 여성동문 페이지 ………… 9면
黃永玉·朱良子·卞柱仙
• 동문을 찾아서 ………… 11면
梁吉承(성수의원장)

法大 1백주년 기념관 기공

건평 6백50평의 3층건물

法科大學同窓會(회장 琴震鎬)는 지난달 9일 63빌딩 광통룸에서 제24대 회장단 및 운영위원을 비롯한 임원진들의 상견례를 겸한 운영위원회를 임원진 개편이후 처음으로 개최했다。

30여명의 임원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회장인사、白忠鉉학장의 모교현황 설명이 있었으며 부회장겸 사무처장인 李相赫동문의 장학회와 동창회 현황보고가 있었다。

한편 9월27일 모교 菊山法學圖書館 앞에서 오는 95년이 근대법학교육 1백주년이 됨에 따라 이를 기념해 96년 완공될 예정인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건립기공식이 성대히 개최됐다。

이 행사는 本會 鄭宗澤상임부회장、李顚熙부회장、尹世榮부회장을 비롯해 李徽永이사、모교 鮮于仲皓공대학장、安輝濬박물관장등 각계인사 1백여명이 참석했으며 1부 기념식、2부 시삽、3부 티파티로 진행됐다。

白忠鉉학장의 경과보고가 있은 후、金鍾云총장은 축사를 통해 『가장 긴 역사를 가진 법대답게 동문들의 힘으로 이런 경사를 맞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琴회장은 『모교 관계자와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희생이 없었다면 이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모든 분들께 동창회를 대표해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장래에 큰 일을 해낼 인재들이 공부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평 6백50평의 3층 건물로 들어서게 될 이 건물은 도서실、컴퓨터실은 물론 대강당과 기념홀도 갖추게 되며 대우그룹에서 10억원、동아그룹에서 5억원을 기증하고 시공을 맡은 (주)태영에서 나머지 비용을 출연키로 하는등 學內外 관계자 및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져 귀감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他대학과 동창회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지난 27일 「근대법학교육백주년 기념관」 기공식이 개최됐다.

醫大 지회장 회의서

국민보건의 중추적 역할 당부

醫科大學同窓會(회장 姜信浩)는 지난달 7일 하얏트호텔에서 94년도 지회장회의를 개최했다。

姜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회원들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을 위해 애쓰고 있는 지회장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지역사회에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중추적 역할과 함께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하고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문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동창회의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이 보고됐으며 朴永夏 을지병원장、徐正燉모교교수등 50여명의 참석임원들은 동창회와 지회의 활성화 및 모교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을 결의했다。 또한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총동창회 주최 등산대회에 많은 회원과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키로 했다。

모교 李純炯의대학장、金光宇제1부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本會 宋斗灝부회장의 축사、韓格富고문의 축배 先導가 있었으며 식사를 마친후 각 지회장들은 자신의 소속 지회에 대한 활동을 소개하고 애로사항 및 지회활성화 방안등 다각적인 의견을 펼쳤다。

단대별 회원현황

單大別 會員現況

〈單位 名〉

區　　分	8月卒業	總會員
人文大學	72	5,879
社會科學大學	94	7,413
自然科學大學	38	5,932
家政大學	8	2,347
看護大學	1	2,479
經營大學	27	3,320
工科大學	43	27,059
農科大學	58	14,828
文理科大學	—	9,731
美術大學	9	3,352
法科大學	43	12,098
師範大學	42	19,716
商科大學	—	6,723
獸醫科大學	—	1,511
藥學大學	—	4,912
音樂大學	16	4,952
醫科大學	—	8,357
齒科大學	—	4,597
大學院	597	41,406
經營大學院	—	701
教育大學院	—	653
保健大學院	23	1,903
司法大學院	—	508
新聞大學院	—	264
行政大學院	51	3,095
環境大學院	—	1,163
小計	1,122	194,899
準會員		13,338
總計		208,237

신입회원 1천1백22명 迎入

-후기학위수여식 單大別로 거행

모교 9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8월말 거행돼 동창회는 1천1백22명(학사 4백51명、석사 3백34명、박사 3백37명)을 신입회원으로 맞이했다。

이로써 동창회 총회원수는 20만8천2백37명(준회원 포함)으로 늘어났다。 각단과대학별 회원수는 별표와 같다。

〈명단 14면 참조〉

新大院 定總 개최

신임회장에 李濟薰동문

新聞大學院同窓會(회장 崔浩)는 지난 9월27일 서울 쌍용스카이라운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을 선임했다。

전임 崔회장의 후임으로 李濟薰(71년 新大院卒·중앙일보 이사)동문이 제10대 회장에 선임됐으며 남은 임원진은 회장에게 일임、차후에 선임키로 했다。

앞으로 2년간 회장으로서 일하게 될 李동문은 『신문대학원 출신의 동문들이 주로 진출해 있는 언론계와 동창회의 가교역할을 수행、친목도모와 동창회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李동문은 현재 세제발전심의위원、평화통일 자문위원직을 맡고 있다。

UBC총장 방한

양교협력의견교환

최근 캐나다 브리티쉬 콜럼비아大學(UBC) 총장일행은 9월27일 韓·캐나다 학술세미나등을 위해 내한하고 本會 金在淳회장과 母校 관계자들을 만찬에 초청했다。

신라호텔에서 열린 이 행사에 金회장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된 관계로 羅雄培 本會부회장과 金東建 母校기획실장、UBC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沈載亨교수가 참석、환담했다。

참석자들은 동창회의 올바른 역할과 동창회와 대학간의 적극적인 협조、발전기금등 모금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金실장과 沈교수는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계획등 모교 현황을 설명하고 21세기를 앞두고 추진할 역점사업등을 소개했으며 UBC Strangway총장으로부터 기여입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 대학의 현황을 들었다。

UBC는 한국기업에서 기증한 후원금으로 아시아센터내에 한국학 연구센터를 설립중이며 모교와 1991년 6월3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인연을 갖고 있다。

알려드립니다

同窓會報가 오는 94년 11월로 紙齡 2백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모두 同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저희 同窓會 編輯部는 「기다려지는 會報」가 될 수 있도록 더욱 精進할 것입니다.

同窓會報 編輯部에서는 2백호를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독자의 소리」라는 欄을 신설해 동문여러분께서 그동안 회보를 보시고 느끼신 점과 평가 및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들을 수렴코자 합니다.

사진 1매와 동문여러분의 의견을 오는 10월25일(火)까지 원고지 1~2매 분량으로 적어 보내주시면 회보에 게재함은 물론 제작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會報略史등으로 꾸며질 이번 특집호에 필요하오니 서울大同窓會報를 창간호부터 現 1백99호까지 소장하고 계신 분께서는 저희 동창회에 꼭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大總同窓會 編輯部

(TEL:702-2233·FAX:703-0755)

모임! 또 모임 연일 러시

電氣동창회 홈커밍데이 개최
등산대회등 여흥시간도 마련

電氣工學科同窓會(회장 文熙晟)는 지난 9월7일 「용수산」에서 임원회의를 열어 중반기 결산과 모교 방문의 날 행사에 대한 준비사항을 검토하고 李昌建동문이 엔지니어 하우스 건립을 위한 기금을 출연했음을 공지했다.

한편 25일에는 모교 교수회관에서 동문과 그 가족등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94년도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성대히 개최하고 참가자 전원에게 푸짐한 기념품을 증정했다.

同會는 이날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李宗勳동문을 비롯해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朴元根,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金敎成, 吳仁澤동문과 포항공대 총장으로 선임된 張水榮동문, 경원대총장으로 선임된 金元燮동문에게 각각 축하의 뜻을 전하고 공로패를 전달했다. 또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21동기회와 34동기회에 감사패를 증정하고 李起哲동문을 포함한 20명의 동문에게 박사학위패를 전달했다.

기념식을 마친후 참가자들은 점심식사를 하고 자운암 등산을 했으며 보물찾기와 가족대항 게임, 장기자랑등으로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지난 25일 열린 전기공학과 동창회「모교 방문의 날」행사.

의대28회 졸업 20주년 기념
발전기금 1천만원 기증

醫大28회동기회(회장 吳世文)는 졸업20주년을 맞이해 모교 방문 및 사은회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마련하고 동문가족도 함께 초청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지난 8월17일 가족을 포함한 39명의 참석자들은 모교 의대와 병원을 견학하고 李純炯학장에게 발전기금으로 1천만원을 전달했으며 韓萬青병원장과 함께 홍보 비디오를 관람했다. 특히 멀리 해외에서 李鎭秀, 韓哲洙동문등이 참석해 동기들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았다.

이날 오후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사은회는 白萬基, 李聖浩, 朴吉秀원로교수를 비롯해 38분의 은사님과 동문가족등 1백47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金聖權동문의 부인 장경애씨의 축가는 단연 돋보였으며 기념품 증정과 경품추첨등으로 시종 흥겨운 분위기였다.

한편 8월18일부터 20일까지 동기 31명과 가족등 1백10명은 제주도로 단체여행을 떠나 아름다운 석양을 배경으로한 야외가든파티와 낚시, 골프등을 함께 즐기며 멋진 시간을 보냈다.

2년간의 고된 준비기간을 거쳐 마련된 이 행사에 대해 殷熙哲조직위원장은 『동기들의 반응이 행사직전까지 매우 미지근해 실제 일하는 사람으로서 힘든 때도 많았다』면서 『제주도로 단체여행을 떠날때는 기후나 교통편때문에 얼마나 조마조마했던지 솔직한 심정으로 국제학회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편할 것 같았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모든 행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준 동기들에게 감사하다면서 기금확보와 앨범 제작을 위해 앞으로 적극 협조해 줄것을 당부했다.

섬유공학동창회
임원분담금책정

織維高分子工學科同窓會(회장 慶世浩·가희대표이사)는 지난 7월5일 대려도에서 기별대표 및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회장단 상견례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한 모임으로 체육대회등이 논의됐으며 기별분담금과 임원분담금을 책정했다. 각 기별분담금은 50만원이며 임원분담금은 회장 3백만원, 부회장 1백만원으로 정했다. 고문과 이사진은 50만원으로 결정됐으며 동창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모든 임원들이 동참키로 했다.

한편 9월12일 「가야성」에서는 각 기별대표와 임원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별대표회의가 열렸으며 10월에 임원 및 기별대표 골프대회를 열기로 하는등 각종 친선모임에 대한 논의를 했다.

법대모임 호황

九法會, 회장등 임원연임

法大9회동기회(회장 崔斗衡·성원개발사장)는 지난달 9일 「동보선」에서 3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임원개선을 겸한 이번 총회에서 崔회장은 회장직을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동문들의 끈질긴(?)설득으로 연임을 받아들였고 전직회장을 지낸 6명의 동문들은 자문위원으로 추대됐다.

또 李海遠(한국우드워드커슨사장)동문, 李泓熙(동서식품회장)동문, 宋庸植(한국프레스센터이사장)동문이 부회장으로 선임된 한편 총무이사에 李基鉉(보신물산상임감사)동문, 감사에 田道學(우성프라스틱사장)동문, 曺奭(前총동창회사무처장)동문이 선임됐으며 22명의 동문이 이사에 선임됐다.

한편 同會는 9월29일 골프대회를 갖고 동문들간의 친목을 돈독히 했다.

法大11회 조찬회서
12월5일 定總결정

法大11회동기회(회장 李大淳·前체신부장관)는 지난 9월14일 「상의클럽」에서 18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매달 열리는 정기조찬회를 갖고 후반기 동창회 사업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참석한 동문들은 오는 12월5일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송년회를 겸한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차기임원진 개선도 함께 치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慶一法會 임시모임
정년퇴임기념식 겸해

法大를 졸업한 동문중 慶南中·高 출신모임인 慶一法會는 지난 9월26일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裵載湜 명예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모임을 갖고 만찬을 함께 했다.

후배이며 제자인 李世震(本會사무처장)동문의 안으로 이뤄진 이날 모임은 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裵교수 내외는 慶一法會회원들이 마련한 기념패와 행운의 열쇠를 증정받았다.

▲慶一法會는 지난 26일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모임을 가졌다.

34년간 모교에 봉직해오다 지난 8월 정년퇴임한 裵교수는 『돌이켜보니 감회가 새롭고 앞으로도 5년은 더 할 수 있을 것같아 미련과 아쉬움은 있지만 대과없이 교직을 마쳤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모교에서의 생활은 보람차고 행복했다고 회고했다.

또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편안한 生을 살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최선을 다할테니 지켜봐 달라』고 말하고 日本의 神戶大學에서 초빙교수로 연구활동을 계속할 것이며, 모교 대학원에도 출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裵교수는 한일포럼의 한국측 회장, 한국통일정책연구회 회장등을 지내면서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받았다.

전북대 총장 역임
사회활동 적극적

9월22일 金元燮동문(52년 工大卒)은 경원대학교 총장 부임인사차 본회 사무처를 방문해 李世震 사무처장과 환담했다.

全北大 총장을 역임하는등 수십년간 教育界에서 후학양성에 남다른 열정을 쏟아온 金총장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國·公立大學에서만 있어온 金총장에게 私立학교에 부임한 소감을 묻자 『국립대학은 신분이 보장되기에 총장이나 교수나 별차이 없었으나 사립대학은 구분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보직교수와 교수들 사이에 화합과 느끼는 정은 훨씬 돈독하다』고 덧붙였다.

▲金元燮 경원대총장

주요사회 활동으로는 한국통일정책연구회 전북지회장을 거쳐 고문을 맡고 있으며 통일에 관해서 지역파당을 없애고, 반대의견을 수용하며 직무에 충실하여 앞날을 향해 나가는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총수조차도 대학경영에는 실패했으며, 그 원인은 대학이 여러 목적을 갖는 복합구성체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학생선발등 학사관리를 대학자율에 맡기는 사고전환이 현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大學은 성적의 고하를 떠나 각 개인으로 하여금 동기유발을 시켜 제 길로 나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禮와 先後를 重視해 某대학 총장물망에 先輩와 같이 추천되자 추천을 고사하여 선배에게 양보하기도 했다.

『가능성 있는 학과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교수들이 세계적 논문을 낼수 있도록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3~4년내에 연·고대 수준으로 육성시킨후 10년후에는 세계적 대학으로 발돋움시킬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산대회 격려차
4년 연속 방문

고국이 그립고 同期들이 보고 싶어 동창회의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母校와 동창회사무처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행사비용에 보태 써달라고 金一封을 내놓기도 하는 동문이 있어 話題가 되고 있다.

동창회 뉴욕지부 前회장 李典九(64년 農大卒)동문은 고국을 떠난지 25년, 뉴욕 한인상공회의소 이사장직을 맡고 사업을 이끌고 있는 바쁜 일정에도 지난 4년간 동창회 친목등산대회와 정기총회 때마다 고국을 찾아 동창들과 은사를 찾아뵙고 동창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李典九 뉴욕지부고문

李동문은 올해에도 등산대회 격려차 본회 사무처에 들러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등산대회에 보태써 달라고 一金 50만원을 내놓았다. 동창회는 이런 열성적인 동문이 있기에 활성화를 이룰 수 있고 유대와 친목의 의미가 굳게 다져지고 있는 것이다.

李동문은 지난 9월15일 재외 한국상공인대회에 뉴욕 한인상공회의소 대표로 초청을 받아 서울회의에 참석했다.

현재 뉴욕에서 골프샵을 경영하면서 무역업에 전념하고 있는 李동문은 지난 90년부터 2차에 걸쳐 동창회 뉴욕지부장을 연임, 全美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창회로 활성화시킨 장본인이다.

고국과 모교발전에 작은 힘이나마 一助하고 싶다고 말하는 李동문은 현재 뉴욕지부고문과 재미서울대학교동창회재단 이사직을 맡고 있다.

환경디자이너 韓道龍동문

나의 길

내가 태어난 경남 충무는 빼어난 자연경관과 더불어 기온이 온화하고 해산류가 풍부하여 일찍부터 훌륭한 휴양지로 손꼽혔다. 선친께서는 당시 멋장이 직업이었던 사진업으로 성업하셨는데 나는 좀더 활동무대를 넓히고 싶은 마음에 먼 친척이 계시던 부산으로 가서 영남상고에 진학하게 되었다. 고교시절, 매년 가을 남도일원의 진주에서는 영남예술제가 열려 젊은 미술지망인이었던 나의 마음을 매우 설레이게 했다. 영남상고는 국회의장이셨던 신익희선생께서 국책으로 지정했던 국민「一人一技」강령을 교훈으로 받아들여 실업교육목표로 삼고 있었기에 예술제의 참여를 적극 권장했고 나는 미술부원으로서 참가해 매년 특선상을 받아 미술선생님과 학교에 기쁨을 안겨드린 기억이 난다. 진학을 결정할 시기가 되어 1954년 종전과 더불어 서울에서 문을 연 미술대학 응용미술과에 응시하기 위해 단신으로 친척도 없는 생면부지의 서울로 상경했다.

초창기 젊은 혈기로 나는 그냥 디자인이 좋아서 선택했고 결국 내 평생 이것을 해야겠다고 생각함에 따라 「디자인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창출하는데 열중했다. 대학졸업후, 선망의 직장이던 한국공예시범소 부장으로 2년여 근무하고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공예과 강사를 61년에 시

4백여회 프로젝트 설계 감리
「한빛탑·겨레의 탑」등 디자인

작해서 이제 벌써 정년을 3년 남겨놓고 있지만, 항시 움직이면서(동적) 대화와 실험정신으로(호기심), 작품구상과 아이디어를 창출하는(사색) 습관은 아직도 정년과 거리가 먼 것 같다.

그동안 우연히 한국무역진흥공사(KOTRA)와 인연이 되어 67년에 세계 최초의 영상전시를 시작한 캐나다 몬트리올 세계박람회 한국관 실내설계를 시작으로 세계 1급 박람회 9회, 국제 무역박람회 53회를 포함한 국내외 환경·실내 디스플레이·C.I.P·제품디자인 4백30여회 프로젝트를 설계·감리했다. 많은 나라를 뛰어다녔고 직접 작업도 함께 하면서 그 곳 사람들의 작업환경과 잠재력 그리고 풍부한 아이디어에 대해 놀라움과 함께 부러움도 느꼈다. 그때마다 국내의 빈약한 산업제품과 산업화·과학화되지 않은 전시기술, 재료·인력부족, 정보·영상시대의 자료·경험부족, 예산부족, 특히 정치, 산업,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전문가·전문성에 대한 이해부족은 우리 환경디자이너 뿐만아니라 제 분야에 있어 기술·경험의 향상 및 축적에 큰 장애요인이라고 생각했다.

작년, 93일간 1천4백만명의 입장객이 동원된 대전 EXPO에서는 마스터플랜과 환경장식사인 시스템을 설계했는데, 특히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본인 이름과 우연히도 동일),에 세워진 93m의 상징탑인 「한빛 탑」디자인은 나의 공예관인 한국전통 문화의 뿌리와 국제감각이 융화된 시대정신표현, 그리고 예술의 과학화정신을 표명한 본보기이다.

누군가 내게 디자이너로서 갖춰야할 요건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첫째, 강한 체력이고 둘째, 체질적으로 호기심이 많아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며 세째, 구태의연을 피하고 끊임없는 도전과 실험정신을 지니며 네째, 폭넓은 경험을 위해 발로 뛰면서 보고 만져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체험이라고 답해주고 싶다. 그러한 이유로, 나는 지난 세월동안 추진력과 혼신의 정(사랑)을 나의 일에 대한 좌우명으로 삼아 살아왔다.

나의 천성이 한국의 자연관과 맞물려 천진성·대범성·순응성으로 모든 작업에 이어지는 것이 아직도 타오르고 있는 나의 꿈이다. 그래서 요즈음 나는 매주 북한산행으로 제3단계의 인생을 구상중이다.

서울대학교, 뭔가 해야한다

느티나무의 廣場

李炯均
(프레스센터 전무)

얼마전에 어느 명문 사립대학의 친구로부터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다. 수십년전 이 대학교가 설립될 당시에 한 지주가 광활한 토지를 기부했는데 지금의 멋진 캠퍼스의 일부가 바로 그 땅이라는 것이다. 그 당시에 학교측은 너무 고마와서 앞으로 지주의 자손은 대학교에 특별히 입학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다고 한다. 수십년이 지나 이 지주의 손자가 집안을 정리하다가 다락에서 할아버지가 남겨 놓은 각서를 발견하고는 대학교를 찾아가 각서의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현행 교육법이나 제도상으로는 땅을 기증했다고 해서 특례입학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각서의 이행이 불가능한 입장이었다.

대학교에 부동산을 기증했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신문지상을 장식하는 하나의 미담으로 밖에는 별다른 효력은 없다. 김밥을 팔아 장만한 임야를 대학에 기증하여 화제가 된 김밥 할머니의 훈훈한 얘기라든지, 막대한 돈을 들여 대학에 연구소를 지어준 어느 기업가에 관한 얘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미담들이 많다.

그러나 이들은 대학으로부터 아무런 보답을 받지 않는다. 재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으로서는 막대한 재산을 기증받았으면 뭔가 보답을 해도 좋으련만 현재로서는 대학에서 줄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자연히 대학으로서도 재산기증자나 헌금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수가 없다. 그냥 앉아서 제 발로 들어 오는 헌금을 접수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 다만 정부를 향해 도와 달라고 목소리만 높일 뿐이다.

1998년까지 교육재정을 GNP대비 5%수준으로 확충하겠다는 정부로서도 재정형편상 대학의 요구에 선뜻 응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얼마전 「교육개혁을 위한 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어느 교수가 『교육재원 확보야 말로 교육개혁의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누가 모르는 소리가 아니다. 다 아는 얘기다. 문제는 어떻게 그 많은 재원을 마련하느냐이다.

특히 서울대학교의 사정은 매우 심각하다. 세계에서 몇번째로 낙후되어 있다느니 하는 통계자료도 다 아는 얘기이다. 그래서 서울대는 역사상 유일한 동문 대통령을 찾아가 장기 발전계획을 보고하고 뭔가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서울대에 퍼부을 돈이 없다. 공연히 동문 대통령에게 마음의 부담만 드린게 아닌가 걱정만 앞선다.

서울대학교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벗어나려면 뭔가 해야 한다. 그 뭔가가 바로 기여입학제도의 채택이다. 선비다운 명분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기여입학제를 실시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지원만 기대할 수 없어 기여입학제 과감히 채택을

기여입학제로 인한 부작용이 무엇인지도 잘 안다. 그러나 발상을 전환하여 대학을 살리기 위해 장독대를 좀 부수자. 쥐를 잡기 위해 장독을 깨서는 안되겠지만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장독이 아니라 골동품이라도 깨야 한다.

막대한 재산을 기증한 독지가의 자손에게 서울대학교 입학의 기회를 주자.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지 않는가. 몇몇 기여입학자를 더에 많은 학생들이 좋은 시설과 좋은 여건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뭐가 나쁜가. 사립대학의 총장들이 소매를 걷어부치고 세일즈맨으로 뛰고 있는 판에 국립대학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명분에만 사로 잡혀 있을 때가 아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말은 바로 기여입학제의 실시에 해당된다. 한시라도 빨리 정부에 대해 이 제도의 실시를 촉구하는 대열에 나서야 한다.

〈본보 논설위원〉

1976. 4. 13 登錄番號(서)라-137號
1988. 11. 9 第3種郵便物(나)級認可

서울大同門에게 告함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서 서울大 동문들이 이룩한 지도자적 성과에 대해서는 자타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선진 민주사회 국가들보다 짧은 역사속에서도 오늘의 위치를 이룩하게 된 것도 여러분의 남다른 연구와 노력의 結晶임이 분명합니다.

해방이후 그리 길지 않은 역사속에서 또한 충분하지 못한 여건하에서, 졸업후 여러분이 이룩한 성과는 앞으로 우리나라 모든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基幹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껏 이룩한 각 분야의 성과를 재평가하고 신중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李大源
(예술원회장)

우리는 이제껏 모든 분야에서 지나치게 빠른 계획과 빠른 성과를 예찬해 온것이 사실입니다. 내실을 기하기보다는 빠른 외형적 성과를 예찬하는 풍습이 우리 사회에 만연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풍습은 그동안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창피스러운 사례를 무수히 남겼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곰곰히 되새겨 봐야만 앞으로 그 낙후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 설계된 교량이 공사중에 붕괴한 사실은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우리 모두가 심각히 반성해야 할 일이 분명한데도 빨리 망각의 현상으로 돌아가버리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각자가 소속된 분야에서 냉철한 자기반성과 새로운 각오로 사회 참여를 할때가 온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개혁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을 나름대로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論語에서 인용한 先公後私라는 어구는 오랫동안 저의 생활신조의 하나로서 자신은 물론 동료 친지들에게도 권해 왔습니다.

이 어구의 뜻은 극히 간단하지만 제대로 실천만 된다면 민주주의의 구현은 물론이고 모든 사회활동의 궁극적인 덕성을 실현하게 된다고 믿어 왔습니다.

앞서가는 지도자상의 확립
동양정신문화 계발할 시점

「公적인 것을 앞세우고 私적인 것을 뒤로 한다」는 풀이는 매우 간단한듯 하지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허다한 일들, 일례로 매일 보도되는 신문지상의 사건들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사건을 자세히 보면 이 先公後私의 정신과 위배되는데서 연유됨을 쉽게 발견할수가 있습니다.

비근한 또 한가지 사례로 근자에 우리나라의 급작스러운 자동차 증가로 인한 소위 자동차 문화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자동차 문화의 극심한 낙후성은 바로 이 先公後私의 정신이 결핍된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先公後私의 사실로 보아 서구의 민주주의에 앞장서서 동양 정신문화가 있었음을 알아내야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문화에 대한 재해석과 발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구한 오천년의 찬란한 한국문화」란는 외형적인 외침을 지양하고 참된 새 문화정책 수립에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세계최초 256메가 D램 개발

서울大를 빛낸 사람들

256메가 D램의 최초개발은 메모리 반도체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수준임을 입증해 준 쾌거이다.

本報는 지난 9월 23일 256메가 D램 개발의 주역인 黃昌圭(76년 工大卒)동문을 경기도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에서 만나 보았다.

—256메가D램의 용도는 무엇이며 현재까지 사용하던 것에 비교한다면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256메가D램은 16、64메가D램에 이은 3세대 메모리 칩입니다. 메모리는 컴퓨터 주기억장치、프린터 기억장치등 기본적으로 기억과 관련된 주변장치에 사용하기 위함이 주목적입니다. 특히 256은 畵象情報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화상정보는 일반 데이터 정보보다 용량이 많이 드는데 256은 HD-TV의 정지화면을 8번정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화상정보를 근간으로 하는 멀티미디어시대에 PC나 HD-TV에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이들의 사용시기를 훨씬 앞당길 수 있습니다』

黃昌圭
(삼성반도체이사)

—반도체를 전공하게 된 계기는…

『당시에 미국에는 반도체붐이 일었지만 국내는 초창기였습니다. 그때 반도체로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윌리엄 샤클리등 3人의 강연을 들은 경험과 석사논문으로 반도체에 관해 쓴 것이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세계 최초로 256메가D램을 개발한 것을 반도체 분야에서 美日을 제치고 완전히 정상에 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美·日제치고 정상등극
HD-TV시대 눈앞에

『적어도 메모리 분야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반도체에는 두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메모리와 마이크로프로세서(MP)입니다. 현재는 메모리 30%, 마이크로 프로세서 70%인데 MP는 미국의 인텔社가 1위이고 우리가 7위입니다. 물론 D램은 우리가 1위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역사가 3、4배 길지만 우리가 추월할 수 있었던 주요요인은 패기와 우수한 인력、집중적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도 조찬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하시며 「앞으로 경제전쟁에서도 계속 1등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개발요원은 얼마나 되며、그중 서울大동문은 얼마나 됩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기술팀인 PA나 설계팀들의 인력은 70명 정도이고 간접인력까지 포함하면 1백50명에서 2백명 정도 됩니다. 동문은 20여명 되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특히 저희 팀들은 여름휴가도 일체 반납하고 밤샘한 날이 며칠이나 되는지 모를 정도로 일에 있어서 열성파입니다』

—가까이 지내는 동기들을 소개해 주신다면…

『워낙 바쁘게 지내다 보니 친구들과 만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동창회에 가끔이라도 나가려고 노력중입니다. 학창시절에는 기숙사에 있었기 때문에 테니스대회에 참가해 우승한 적도 있습니다』

한편 黃동문은 공학박사학위 취득후、美스탠포드大 책임연구원 및 인텔社 자문을 역임했으며 1989년 4월 귀국、삼성전자에 이사로 근무하며 반도체를 담당하고 있다.

가족으로 鄭惠旭 여사와의 사이에 1남2녀를 두었다. 〈嚴〉

서울大學校同窓會報
1976. 4. 13 登錄番號(서)라-137號
1988. 11. 9 第3種郵便物(나)級認可
第199號

여성동문 페이지

평화의 소중한 시작

봉사는 내 삶의 거름 가족중심 탈피 해야

卞柱仙
(64년 師大卒 · 걸스카웃총재)

우리의 삶을 4계절에 비추어 생각한다면 지금의 내 삶은 과연 어떤 계절일까. 누구나 풍요와 수확의 가을이기를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세상에는 수많은 갈래의 다양한 삶이 존재하고 있어서 화사한 봄빛속에 놓여있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눈보라치는 벌판에 버려져 있는 인생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모습의 삶들이 조화로운 세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나는 여성이야말로 조화로운 세계를 위해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실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은 가슴속에 뜨거운 사랑을 간직한 존재이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이다. 여성은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할 뿐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의 실천자로서 인간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열어 「그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가까운 이웃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더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20년 넘게 걸스카웃지도자로 봉사해오면서 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 바쁜중에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해내느냐는 감탄섞인 질문을 여러번 받았다. 그때마다 나는 그것이 걸스카웃의 매력이라고 얘기하곤 하는데, 사실 내가 나누어 주는 것보다 몇 배나 더 큰 보람과 기쁨을 되돌려 받는다는 것을 말로 설명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남을 돕는 것은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거름과 같다. 이 사회에는 여성들의 능력과 관심을 필요로 한는 곳이 많이 있다. 여성들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를 필요로 하는 봉사단체나 지역사회를 위해 활용하려는 생각을 갖고 실천해 나갔으면 한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위한 값진 준비이며 평화의 소중한 시작이 된다.

'나'보다 '우리'를

경제력만 강조, 「우리문화」경시 함께발전해야 나도 잘살수 있어

朱良子
(66년 大學院卒 · 국회의원)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란 말보다 「우리」란 단어를 더 좋아한다.

우리동네, 우리학교, 우리나라처럼 복수 일인칭을 써야 할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외아들, 외동딸까지도 내 어머니나 내 아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이라고 부르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자기집을 일컬을 때 내 집이라고 하지않고 우리집이라고 한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이처럼 「우리」란 말을 즐겨 쓰면서도 우리 사회는 도무지 생각이나 행동이 「우리」가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같다.

옆집 아이와 내 아이가 싸우면 무조건 내 아이 역성을 들고 나서는가 하면 길게 늘어선 매표소 앞에서는 암표가 성시를 이루거나 새치기해서 먼저 볼일을 보려고 아우성이고 어쩌다 고속버스를 타고 여행이라도 해보면 추월선과 주행선을 구별해서 운전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 공중화장실이라도 이용하려면 휴지걸이는 이미 떨어져 나간지 오래이고 여기저기 버려진 휴지며 가래침이 절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정말 이웃 아이들도 우리 아이라고 생각한다면, 매표소 앞에 늘어선 사람들이 우리중 한사람이라면, 고속도로가 우리 길이고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이 우리라면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우리(집)화장실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세계가 경탄하는 경제발전을 이룩하기까지 오로지 잘살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 온 동안 우리는 혹시 소중하게 간직해 온 「우리문화」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어차피 우리는 나 혼자 또는 내 가족끼리만 살 수 없는 사회적 존재이다.

「우리」가 함께 발전하고 「우리」가 건강해야만 나도 잘살 수 있음을 지금이라도 함께 인식하고 「우리문화」를 되찾았으면 좋겠다. 말만이 아닌 진정한 「우리」문화를.

사람 기르는 일

내아이 기른 경험으로 제3의 인생 설계 자신

黃永玉
(63년 法大卒 · 주부)

세상사람들의 부러움과 기대가 큰 만큼 우리 졸업생들이 느끼는 사회봉사의 의무 또한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동문들이 느끼는 「무언가 해야 한다」는 마음은 때때로 강박관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바로 키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하다는 생각을 한 저는 졸업직후 고등학교에서 교편생활을 몇년 하다가 결혼과 더불어 「내 아이 기르는 일」로 일을 바꾸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모두 잘 자라주어서 제 「평생의 직업」에 만족하고 늘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관리하는 질서입니다. 좋은 사회는 좋은 사람만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사람 기르는 일이 곧 좋은 사회 만드는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사람은 화초와 같아서 정성을 들인만큼 되어진다는 것이 제 믿음입니다. 화초에 물한번 더 주고 비료 한번 더 주면 그만큼 더 좋은 꽃을 피우듯이 사람도 마음 한번 더 쓰고, 손길 한번 더 가면 그만큼 나아진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더구나 인간은 자기가 경험한 만큼을 세상에 되돌려 줄 수 있고, 그래서 자기가 받은 사랑의 크기만큼 남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남을 사랑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한없는 사랑이 주어져야하고 애정을 쏟아야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손발이 마를 사이 없이 뛰어다니며 사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옛 사람들은 인생을 두 토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처음의 반생은 배우고 자라는데 보내고, 나머지 반생은 일하는데 보낸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삶의 길이가 길어져 제3의 반생이 보태졌습니다. 배우고 일한 후 다시 그 경험을 갖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반생(정확히는 1/3)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세번째의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일, 할수 있는 일을 꼽아보니 너무 많고, 너무 뿌듯하여 대학입학했을 때의 마음을 다시 갖게 됩니다.

나머지 반생은 온 세상의 아이들을 기르는 일에 내 몸과 마음을 모두 쏟으려 합니다. 「내 아이 기르던 경험」을 바탕으로 남의 아이들을 기르는 일을 해보려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곳임을, 우리 모두는 하나임을 일러주고…… 해야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제3의 인생을 설계하면서 자신을 갖습니다. 제가 삶의 길목마다에서 만났던 많은 훌륭한 친구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大의 여성동문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따뜻하고 밝은사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 할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세상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시렵니까? 다시는 요즈음 뉴스마다에서 대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말입니다.

同門소식

▲高亨坤(33년 文理大卒·前全北大總長)‖지난달 15일 열린 대한민국 학·예술원 개원40주년 기념식 및 제39회 학·예술원상 시상식에서 학술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林元澤(47년 文理大卒·母校명예교수·수원大 대우교수)‖최근 제39회 학·예술원상 시상식에서 학술원상을 受賞。

▲咸仁英(48년 工大卒·美펜실바니아주립大교수)‖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생산공학회(CIRP)회장에 被選。

▲金相廈(49년 文理大卒·商議會長·本會副會長)‖최근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이사장과 「서울·북경경제교류협의회」명예회장에 선임됐다。

▲曺祥鉉(51년 音大卒·서울뮤직클럽회장·本會理事)‖오는 10월23일 오후7시30분 호암아트홀에서 「꽃노래 향연의 밤」을 개최한다。

▲金湖鐵(53년 文理大卒·한국과학기술원교수)‖최근 KAIST 대덕캠퍼스 대강당에서 정년퇴임식을 가졌다。

▲丘仁煥(54년 師大卒·母校教授)‖최근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장편소설 「동트는 여명」(신원문화사刊)을 出刊。

▲李奭熙(55년 法大卒·대우재단이사장·本會副會長)‖최

국제와이즈맨으로부터 30년 근속봉사공로패와 금메달을 받았다。

▲高在雄(56년 工大卒·건국大교수)‖최근 건국대학교 대학원장에 취임했다。

▲李勉榮(56년 農大卒·홍익大總長)‖지난달 12일 열린 이사회에서 제11대 총장으로 재선임됐다。

▲李炳漢(56년 文理大卒·母校教授·중국문학이론연구회장)‖지난달 6일부터 9일까지 日本 선대동북大에서 개최되는 「노신 국제학술회의」에 참석, 「노신의 구제시에 관한 논문을 발표。

▲林錫珍(56년 文理大卒·명지大교수·한국헤겔학회장)‖지난달 24일 명지대학교 회의실에서 「헤겔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최근 명지大 사회교육대학원장에 임명됐다。

▲金炫植(56년 商大卒·동아출판사부회장·本會理事)‖최근 몽골정부로부터 양국간 출판인쇄문화 교류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수교훈장을 받았다。

▲閔丙一(56년 齒大卒·母校教授)‖최근 중국 길림성 연변의학원 객좌교수로 추대됐으며 제2회 구순열무료수술을 했다。

▲姜晉求(57년 工大卒·삼성전자회장·

국제심포지엄을 개최。

▲李揆行(58년 商大卒·前문화일보사장)‖최근 문화일보 회장으로 추대됨。

▲李漢雄(58년 商大卒·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本會理事)‖최근 방글라데시 다카市에서 열린 아시아신협연합회(ACCU)제13차 총회에서 제11대 회장에 선임。

▲朴世熙(59년 文理大卒·母校教授·本報論說委員)‖최근 제39회 학·예술원상 시상식에서 학술원상을 受賞。

▲權英子(59년 文理大卒·정무제2장관·本會理事)‖최근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민주적 가족관계정립을 위한 평등한 부부토론회」를 개최。

▲鄭根謨(59년 文理大卒·고등기술연구원장)‖최근 「통일을 위해 바람직한 대북 경수로 지원방법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 欄은 同門들의 동정을 全회원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사진과 함께 記事를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電話로 통보해 주셔도 됩니다. 단, 本報의 편집방침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年 3回 이상 게재치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電話 : (702) 2233~5
FAX : (703) 0755

▲蔡永福(59년 文理大卒·한국화학연구소장)‖최근 대한화학회 제29대 회장에 취임。

▲崔秉篔(59년 藥大卒·동덕女大교수)‖최근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장에 임명됐다。

▲金孝圭(59년 大

주총에서 신임사장에 선임。

▲金賢哲(63년 法大卒·前서울고검장)‖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선임。

▲尹元錫(63년 法大卒·대우조선사장·本會理事)‖최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최한 「94년도 가치혁신(VE)운동 전국대회」에서 가치혁신대상을 수상했다。

▲鄭之兌(63년 法大卒·상업은행장)‖최근 광주소재 삼육재활원을 찾아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崔勝民(63년 法大卒·변호사)‖최근 광고방송 심의위원에 위촉됐다。

▲禹德昶(63년 商大卒·쌍용양회공업사장)‖최근 物流공동화 추진위원회 창립총회에서 위원장에 선임됐다。

▲印雲燮(64년 文理大卒·방송위원회사무총장)‖최근 제1백49차 방송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한국방송개발원 이사로 추대。

▲鄭助英(64년 文理大卒·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상임부회장·本會理事)‖최근 延吉에서 개최된 중국 조선족과학기술자협회 창립5주년 기념식에서 고문으로 추대。

▲尹永錫(64년 商大卒·대우조선부회장·本會理事)‖최근 美國 VE협회가 수여하는 회장賞을 수상했다。

됐다。

▲梁在信(66년 工大卒·前대우기전부사장)‖최근 대우자동차 부사장으로 전보。

▲韓鍾河(66년 師大卒·한국교육개발원장)‖지난달 9일 駐韓프랑스대사관과 공동으로 국내 고등학교 프랑스어 교육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

▲李相潤(66년 商大卒·株농심副社長)‖최근 (株)농심대표이사 사장에 영전됐다。

▲安泰伯(66년 行大院卒·前국민大상과대학장)‖최근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장에 취임。

▲姜健一(67년 藥大卒·숙명女大교수)‖최근 「재미있는 약이야기」(학민사刊)를 出刊。

▲殷熙俊(68년 文理大卒·한국표준과학연구원)‖최근 연구기획부장으로 임명됐다。

▲黃山城(68년 法大卒·前환경처장관·本會理事)‖최근 사단법인 韓·카자흐스탄 친선협회 명예회장에 선임됐다。

▲曺昌範(69년 法大卒·前외무부駐캐나다대사관 참사관)‖최근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안보통일 연구관에 임명됐다。

▲朴鍾奭(69년 商大卒·한국주택은행장)‖최근 경기도 고양시소재 양로원인 「희망의 마을」과 서울 마포구소재 마리스타기술교육원을 방문하고 성금을 전달。

▲金鎭衡(71년 工大卒·한국과학기술원교수)‖최근 「환태평양 인공지능 국제학술대회」 상임이사회에서 사무총장에 선임。

▲徐東喜(70년 美大卒·건국大교수)‖10월17일부터 24일까지 서울아메리칸센터(前미국문화원)에서 도예전을 갖는다。

▲車姙仙(70년 美大入·상명

30분。

*김계찬군(92년 經營大卒)김도양양‖10월2일 14시。

*정회경군(88년 自然大卒)전정화양‖10월3일 12시30분。

*강두경군·정호경양(93년 看護大卒)‖10월3일 15시30분。

*표영택군(92년 社會大卒)최 진양‖10월8일 11시。

*이종원군(87년 法大卒)김영민양(87년 師大卒)‖10월8일 12시30분。

*채승진군(85년 美大卒)김숙명양‖10월8일 14시。

*이정택군(90년 農大卒)강지현양‖10월9일 11시。

*최광보군(88년 工大卒)박천건양‖10월9일 12시30분。

*김동귀군(87년 工大卒)오현숙양‖10월9일 15시30분。

*홍호진군(90년 農大卒)이경아양‖10월15일 11시。

*김용욱군(92년 法大卒)임미숙양‖10월15일 12시30분。

*김일표군(93년 農大卒)윤선경양‖10월15일 14시。

*박현용군(90년 自然大卒)정혜영양‖10월15일 15시30분。

*김상우군(86년 農大卒)김윤주양‖10월16일 11시。

*이재준군(89년 社會大卒)손혜진양‖10월16일 12시30분。

*김규성군(88년 自然大卒)성수란양(92년 自然大卒)‖10월16일 14시。

*김동배군(89년 經營大卒)최정선양‖10월16일 15시30분。

*이재우군(89년 藥大卒)이자균양‖10월20일 12시30분。

*최형규군(89년 農大卒)정현미양(91년 人文大卒)‖10월22일 12시30분。

*오정근군(93년 師大卒)박현혜양‖10월22일 14시。

*최병훈군(91년 師大卒)한소영양‖10월22일 15시30분。

*곽선국군(91년 農大卒)한현숙양‖10월23일 10시。

1976. 4. 13 登錄番號(서)라－137號
1988. 11. 9 第3種郵便物(나)級認可
第199號

同門을 찾아서

「시민인권상」수상 梁吉承동문

정의의 메스든 행동파 의료인

「人·醫·協」결성주도

『귀하는 소외받는 사람들의 인권보장에 대한 투철한 소명의식으로…』

지난달 23일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梁吉承동문(67년 師大入·69년 醫大入·성수의원장)에게 수여한 제2회 시민인권상의 첫 구절이다.

梁동문은 산업화 과정에서 심화돼 온 산업재해, 직업병, 인권문제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노동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인도주의적인 의료활동을 펼쳐 온 보건·의료분야의 인권운동가이다. 전남 나주가 고향인 梁동문은 학창시절 적극적인 사회활동으로 인해 제적·투옥·복학을 거듭했고 문화 운동중에 만난 부인과의 사이에 2녀를 두었다.

아일랜드 골웨이 국립대학으로 유학해 졸업한 후 1988년 성수의원을 개원했으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를 결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기자는 지난달 28일 성수의원에서 梁동문을 만나 보았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수상소감은…

『여러분이 함께 한 노력인데 혼자 받게 돼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없는 영광이지만 의사라는 계층이 받게 돼 혹시 다른 사람들이 「이 賞도 어떤 계층을 위한 賞이구나」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를 결성하게 된 동기는…

『진료실 안에서만의 정적인 활동보다 외부적 환경에 의해 진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적극적인 의료활동을 펴고자 하는 의학도들의 모임인 사회의학연구회가 모체가 됐습니다. 결성 당시 회원은 1백87명이었는데 현재는 8백명 정도 됩니다』

—학창시절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우리 이순신이라는 촌극에 주정뱅이 시인으로 출연한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보람됐던 일과 미진했던 점이 있다면…

『疑問死와 관련해서 보도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보람을 느꼈을 때는 의문사임을 주장하는 사망자 가족들에게 의문사가 아님을 해명해 갈등을 풀었을 때와 승소했을 경우입니다』

산업보건 종합센터 건립계획

『이런 일들은 우리 시대의 아픔을 씻어내기 위한 한 과정으로서,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판정은 공정한 신뢰가 실려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선입견에 좌우돼 편가름 되는 경우가 있어 이런 점은 아직 미진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향후 계획이나 포부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우선은 산업보건 종합센터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업병 센터·산업재해센터·산업보건교육센터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산업병은 특수하게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흔한 것임에도 미연에 방지할 수 없어 개인이나 경제적으로 손실이 매우 큽니다. 산업보건 종합센터는 이런 안타까움을 바꾸자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嚴〉

揭示板

…근 기초 학술 출판분야 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체육부 장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柳正烈(52년 文理大入·한국외국어大교수)=지난달 17일 중동아프리카연구원장으로서 카이로大와 공동으로 「변화하는 세계속의 한반도와 중동」에 관한 韓·이집트 학술회의를 개최.

▲尹海重(55년 音大卒·한양大교수)=최근 한양大 백남음악관에서 정년퇴임기념 작곡발표회를 가졌다.

▲李鍾衍(56년 商大卒·조흥은행장·本會理事)=최근 경기도 고양시 소재 양로원인 「희망의 마을」과 서울 마포구 소재 「마리스타기술교육원」을 방문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金濟浩(56년 法大卒·코리아나투어회장·本會理事)=최근 「김자경 오페라단」후원회장과 「이북5도민회 서호지구민회」회장에 선임됐으며

…本會副會長)=최근 美國 VE협회가 수여하는 회장賞을 수상했다.

▲張善栢(57년 美大卒·동덕女大교수)=최근 동덕여자대학교 예술대학장에 임명됐다.

▲尹銘重(57년 文理大卒·한국방송기자클럽회장)=지난달 29일 63빌딩에서 崔炯佑내무부장관을 초청해 지방행정전반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

▲鄭鎬斗(57년 文理大卒·한림大강사·本會理事)=최근 「종교학십강」(성광문화사刊)을 유승민 교수와 공저로 出刊.

▲黃仁政(58년 文理大卒·한국개발연구원장)=최근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韓·中·日의 대응과 협력」이란 주제로

…學院卒·아주大總長)=지난달 12일 아주대학교 캠퍼스에서 아주大부속병원 개원식을 가졌다.

▲尹弘老(60년 文理大卒·단국大교수)=최근 단국대학교 총장서리에 선임됐다.

▲李基種(60년 師大卒·전북大교수)=최근 전북대학교 교무처장에 임명됐다.

▲孫光植(62년 商大卒·前현대문화신문전무)=최근 문화일보 사장으로 승진.

▲金時淡(62년 商大卒·한국은행이사)=지난달 15일 열린 은행장회의에서 은행연합회 산하 금융연수원 원장에 선임.

▲曺 源(62년 商大卒·前국세청 세무공무원연수원장·本會理事)=최근 한국신용평가

▲任孝彬(65년 工大卒·前고등기술연구원부원장)=최근 대우인력 개발원장으로 전보.

▲吳昌圭(65년 商大卒·한국IBM社長)=최근 94년도 대한민국 기업문화상 우수상(문화체육부장관상)을 受賞.

▲李圭漢(65년 保大院卒·단국大교수)=최근 단국대학교 부총장에 취임했다.

▲吉熙星(65년 文理大卒·서강大교수)=최근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장에 취임.

▲吳世榮(65년 文理大卒·母校敎授)=최근 시집 「꽃들은 별을 우러르며 산다」(시와 시학사刊)가 일본어로 번역돼 동경의 자양사에서 출판

…女大교수)=지난달 9일부터 16일까지 갤러리빙에서 섬유미술 개인전을 개최.

▲安吉龍(73년 法大卒·동양선물대표이사)=최근 동양증권 부사장에 선임됐다.

▲李啓炯(77년 師大卒·상공자원부)=최근 상공자원부 소속 대통령비서실 경제비서실에 파견.

結婚

同窓會館 冠岳홀

＊이성호군(92년 經營大卒) 박선경양=10월1일 12시

＊김수일군(86년 經營大卒) 김현실양=10월23일 11시.

＊권명수군(94년 經大院卒) 이경희양=10월23일 12시 30분.

＊나도수군(88년 農大卒)권순주양=10월23일 14시.

＊김준영군(90년 工大卒)김민아양=10월23일 15시30분.

＊백운표군(88년 社會大卒) 김윤정양=10월29일 11시.

＊기성식군(87년 社會大卒) 양현희양=10월29일 12시 30분.

＊임홍빈군(87년 人文大卒) 이영미양=10월29일 14시.

＊김지원군(93년 醫大卒)정옥란양(91년 看護大卒)=10월30일 11시.

＊이주행군(89년 自然大卒) 정은주양=10월30일 12시 30분.

＊최현호군(88년 工大卒)진향미양=10월30일 15시30분.

〈정리=金志姸 기자〉

정년퇴임을 축하합니다

學問연구와 後學육성에 半平生을 바쳐온 母校교수 열 일곱분이 지난 8월31일 정년퇴임으로 母校를 떠났다.
이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獻身의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한마디의 말씀을 받아 싣는다.

학부제 빨리 시행돼야

尹玉鏡교수
자연대·수학

정년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젊음을 간직한 모습의 尹교수.

대학에 입학한지 1주일만에 전쟁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해사에 입학, 54년 졸업이후 줄곧 해군에 몸담았던 尹교수는 68년 교양학부에 부임하여 강단과 인연을 맺었다. 75년 모교 대학원에서 이학박사학위를 받은 후 미분기하학 분야의 학문정립과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수학경시대회를 창안하고 수학올림피아드 단장을 역임하는등 영재교육 및 수학 국제화에도 큰 역할을 했다.

수학과·치의예과 학과장과 수학연구소장, 학생생활 학장보등의 직책을 맡으며 행정업무에도 종사한 尹교수는 『5공시절 학생담당학장보를 맡았을 당시가 학생들이 시위를 많이 해서 제일 힘든 시기였다』고 회상한다.

『학교 시설과 교수정원이 학문의 수준에 못미치고 있다』고 진단하는 尹교수는 『학교를 위해서나 학생을 위해서나 학부제는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술, 과학과 연계해 생각

權純亨교수
미대·공예

55년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한 權교수는 61년 미대에 부임한 이래 15회에 걸친 도예전을 개최하는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통해 3·1문화상 및 대한민국 예술원상을 수상했고 대한민국 전람회 초대작가와 심사위원을 지내며 일평생 도자기 외길을 걸어 왔다. 또한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으로 있으며 모교 미대학장을 역임, 대학발전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공예과에는 토질에 대한 과학적 실험을 하거나 컴퓨터그래픽을 할 수 있는 첨단시스템이 거의 전무해 심각한 위치에 있다』며 『이제 미술도 과학과 연계해서 생각할 때가 됐다』고 피력했다.

한편 權교수는 타학과 학생들도 의무적으로 미술과목을 한 학기라도 들었으면 좋겠다며 문화적 소양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퇴임후에는 보다 본격적으로 도자기에 매달릴 수 있을 것이라는 權교수에게서 고집스런 예술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교육자 이전에 학자라야

張奭鎭교수
인문대·언어학

『우선 여행을 하면서 좀 쉬고도 싶지만 외국어를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張교수는 55년 모교 영문과를 졸업, 美일리노이大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은 후 61년 전임강사로 부임한 이래 33년간 언어학 연구에만 매진해오며 한국어 화용론, 통합문법론, 한국어전산처리에 필요한 언어학적 기초연구등의 많은 업적을 쌓았다.

76년부터 80년까지 어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張교수는 학문적 성취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기보다는 못 다 이룬 일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교수는 교육자 이전에 학자이어야 한는 것이 특론임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노력부족으로 학문의 전수라는 상아탑 안넌, 대피소에 안주하고 있는 모습에 가련함을 통감한지도 오래됐다』며 『머리좋은 학생들을 모아놓은, 학생에 의한 「서울대」가 아니라 교수들의 연구업적과 그 질적수준에 의해 국제적으로 알아주는 「서울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양위해 많은 독서를

朴弘來교수
자연대·계산통계

『그동안 학자의 길을 꾸준히 걸어 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상당한 보람을 느낍니다』

朴교수는 지난 52년 농경제학과를 졸업, 美노스캐롤라이나주립大에서 통계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59년 농과대학에 부임한 이래 농수산통계와 관련된 분야의 조사연구에 큰 업적을 남겼으며 한국통계학회장등을 역임했다. 현재 경제기획원 통계청 통계위원과 농림수산부 통계심의위원장등을 맡고 있는 朴교수는 농수산업 통계와 관련된 분야를 완성시키는데 큰 공헌을 한 바 있다.

『앞으로도 통계연구소에 계속 나오면서 후학들에게 나의 경험과 방법을 훈련시키는 기회를 마련해 꾸준히 후진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반평생 학자의 길을 걸어온 朴교수는 후학들에게 『전공분야에서 견고한 이론을 습득하는 동시에 교양을 위해 많은 독서를 하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자신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신기록 소중히 해주길

金靜子교수
미대·산업디자인

9월 한달간 열렸던 정년퇴임 기념전시회로 바쁜 나날을 보낸 金교수는 『이젠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하고 가고 싶은 곳을 다니며 생활하겠다』고 말했다.

정년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운 모습의 金교수는 50년 숙명여대를 졸업, 美오클라호마大에서 유학한 後 59년 모교에 부임하여 기초디자인 분야의 학문연구와 후학양성에 주력해왔다.

한국판화가협회에 있으면서 한국디자인의 국제화에도 큰 기여를 했으며 현재 미대교수중 80%가 제자라는 金교수는 『요즘 학생들이 시간을 아껴쓰고 자기작품은 모든 것이 자신의 소중한 기록이니 하나하나 소중히 했으면 좋겠다』며 제자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자세로 본격적인 작품활동을 하고 싶다는 金교수에게서 나이를 잊을 만한 여장부의 기질을 엿볼 수 있었다.

대학은 자유로와야 한다

李相禧교수
사회대·신문학

『우수한 동료·제자들과 한평생을 보냈다는 사실이 다행스럽게 느껴집니다』

58년 문리대 사회학과를 졸업, 67년 신문연구소에 부임한 이래 불모지와 다름없던 언론학을 개척했으며, 특히 비판언론학과 전근대사회의 언론현상분야의 이론적 체계수립에 공헌한 李교수는 한국신문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李교수는 『현재의 제도언론은 시대와 역사를 보는 투철한 철학이 부족하고 아직도 50~60년대 냉전이데올로기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장기적인 안목없이 정국에 따라 달라지는 논지를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대학이 정치권력에 의해 자율성을 잃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교수협의회 의장,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위원장등을 맡아 대학과 사회발전에 매진해 온 李교수는 『대학은 자유로와야 한다』고 강조하며 『내게는 반골기질이 있어서 교수 아니면 다른 일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론보다 실제에 강해야

李海京교수
공대·항공우주학

77년 국방부 의뢰의 무인정찰기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을 가장 보람있는 일로 손꼽는 李교수.

53년 항공공학과를 졸업하고 모교 강단에 선 이후 40여년간 교육자로서의 길을 걸어온 李교수는 구조역학, 공력탄성학 및 복합재료주조 해석분야의 업적을 쌓았다.

기술불모지에 항공공학이라는 분야를 확립시키는데 큰 공헌을 한 李교수는 한국복합재료학회·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을 역임하는등 국내 항공우주분야의 신소재연구에 선구자적 역할을 했으며, 이외에 공학연구의 사회환원에도 크게 기여했다.

전쟁중 공군 비행기정비장교로 입대하면서 얻은 지식이 강단에서도 많은 도움이 됐다는 李교수는 『이론보다는 실제에 강한 학생을 키우는 것이 교육철학』이라며 이론에 치우쳐 있는 지금의 공대교육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퇴임후에도 계속 강의를 맡아 후진양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문하는데 자극있어야

裵載湜교수
법대·공법학

『정년은 모든 학문생활을 마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직에서 물러날 때를 정해놓은 것일 뿐이다』

지난 53년 법학과를 졸업하고 58년 전임강사로 부임한 이래 법학연구소장을 거쳐 법대학장까지 역임했던 裵교수는 37년간의 교직생활을 통해 재일동포의 법적지위 문제를 비롯한 국제 인권분야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 현재 裵교수는 한·일 포럼 한국측 초대회장, 한국통일정책연구회장 등을 맡고 있으며 일본의 대학에 도 出講할 예정이다.

평소 信義와 誠實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다는 裵교수는 『학원자율화가 시작되면서 학내·데모가 끊이질 않았던 학장시절이 가장 어려웠다』고 회상했다. 행동에 앞서 생각하고 배우기를 후학들에게 당부하는 裵교수는 『학문하는 자에게 자극이 없어서는 안된다』면서 국제적 교류를 위해 객원교수로 일본에 가서 서울대의 명예에 손색이 없도록 강의·연구발표할 각오를 밝혔다.

1976. 4. 13 登錄番號(서)라－137號
1988. 11. 9 第3種郵便物(나)級認可

사제관계 재정립 필요

朴東緖교수
행대원·행정학

『이제는 우리 대학에도 사제관계를 재정립해 계층성을 지양하고 교수가 따뜻한 지도로 제자들을 이끌어야 한다』

朴교수는 53년 법대를 졸업, 59년 행정대학원에 부임한 이후 한국행정학회장, 한국정치학회장, 행정쇄신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한국행정학계의 토대를 닦았으며 또한 행정대학원장을 역임하면서 학교발전과 후학양성에 크게 공헌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행정학의 한국화로 외국의 맹목적 모방은 「금물」이라며 현행정에서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공무원 문제를 꼽는다. 봉사성이나 민주성, 능률성이 부족하다는 고질적 문제뿐만 아니라 권력을 자신의 치부수단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이 하루빨리 근절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분리연구되고 있는 행정법학과 행정학의 연계작업을 시도해 보고 싶다는 朴교수는 앞으로 자신만의 목소리를 담은 「한국 행정의 연구」라는 책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생을 노력하는 자세로

白樂皓교수
음대·기악

『건강하지만 후학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연주자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31년간 재직한 음대의 발전을 고대한다는 白교수는 52년 기악과를 졸업, 59년 예일대석사, 62년 줄리아드음악원을 수료했다. 63년 모교에 부임한 후 음대학장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독창회, 교향악단과의 협연, 외국연주회등 음악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그 공로로 72년엔 대한민국 예술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아버님이 외과의사였기에 의사가 되길 원하셨으나 나는 다섯살 때부터 벌써 피아노에 빠졌었다』

「평생을 노력하는 이로 사는것」을 좌우명으로 삼는다는 白교수는 후학들에게 『전공을 음악으로 정했으면 일생을 거기에 충실하며, 감사하고 노력하면서 한 길만 걸으라』고 당부했다.

퇴임후 음악협회 이사장직에 충실하게 전념할 예정이라는 白교수는 곧 있을 서울 국제음악제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독자성·위상수립 기대

李庸周교수
사대·국어교육

『조금 더 남아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인생의 반 이상을 학문에 던지고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李교수.

54년 국어과 졸업, 문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63년 사범대학에 부임한 李교수는 국어학의 의미론 및 문법론, 국어교육에 관한 80여편의 논문과 10여권의 저서를 발간하는 등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정립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李교수는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변화에 발맞춰 교원양성기관 이상의 위상수립을 통해 독자성을 가져야만 사범대가 관악에 존속할 수 있다며 후학들의 분발을 기대했다.

또한 『강의 안듣고 남보다 앞설 수 있다면 수업을 빠져도 좋다』며 대학생활 속에서 시간을 아끼고 학생본업에 충실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여름에 3～4회 낚시하는 것이 조용한 휴식의 전부라는 李교수, 그의 생애가 비 갠 후의 아침이슬처럼 맑고 청조한 삶이었음을 짐작케 했다.

사회에 累되지 않도록

兪 焄교수
행대원·행정학

『사실 직무를 통해 자기실현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나는 내 관심분야를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었던 그간의 활동에 만족스럽습니다』

지난 54년 법대를 졸업하고 59년 행정대학원에 부임한 兪교수는 행정학원론, 재무행정론등 학문 정립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행정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장, 한국공기업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행정학의 전망에 대해 兪교수는 『최근에 등장한 정책학이 행정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행정학은 정책학과 상호보완하는 관계로 나아갈 것』이라며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에 맞게 토착화하는 것이 행정학의 과제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서울대 교수로서 어디서든지 존경과 대우를 받아왔다는 兪교수는 『우리사회에서 서울대동문이라는 것은 영광인 동시에 부담이 된다』고 말하고 『싫든 좋든간에 우리가 짊어져야할 십자가라 생각하고 累가 되지 않도록 살아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전공이외 분야도 폭넓게

李仁榮교수
음대·성악

『가장 훌륭한 대학에서 훌륭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것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李교수는 일본 동경예술대 오페라 전공 1기생으로 50년대를 일본에서 주역베이스로 활동하다 지난 69년 모교에 부임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베이스 바리톤 성악가로 30여회의 오페라와 많은 독창회와 협연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 왔으며 지난 3월 한국 최초로 오페라연구소를 설립, 국내 성악발전과 오페라계의 발전에 공헌해 왔다.

가족중 딸 셋이 모두 음악, 미술을 전공하여 예술인 가족을 이루고 있는 李교수는 『오페라 연출가는 전공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폭넓게 알아야 방대한 오페라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다』며 취미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모교에서 강의를 시작한 지 34년이 넘는 李교수는 『능력있는 젊은 인재들을 개발하는데 주력하면 10년쯤 뒤엔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고의 예술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일에 예민한 기지로

馬點述교수
수의대·수의학

『학문하는 것을 생활의 전부로 생각하고 남달리 성실하게 노력했다는 자부심에 만족하고 있다』

56년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아사부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馬교수는 77년 모교에 부임한 후 우역예방약 개량등 가축방역사업에 관계된 논문과 저서를 발표했으며, 대한수의학회장과 농촌진흥청 연구사업 평가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학계 및 농촌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馬교수는 연구인원 부족을 한국 수의학계의 문제점으로 꼽고 6년제 학제개편, 시설확충 등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馬교수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배우는 사람인 동시에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므로 모든 일에 예민한 기지로 감수성있게 통찰하고 소화하여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좋은 결말을 생각치 말고 자기가 맡은 일에 참되고 성실한 자세로 꾸준히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조직학 널리 보급되도록

趙錫俊교수
행대원·행정학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조직학이 뿌리를 내려 널리 보급되도록 노력하고, 행정학의 발전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연구하겠습니다』

57년 대학원을 거쳐 61년 모교에 부임, 조직관리론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은 趙교수는 한국행정학회장 및 행정대학원장을 역임하면서 학계 및 학교 발전에도 커다란 공헌을 한 바 있다.

그는 또한 행정학의 특성상 정부와 관계되는 일을 많이 했고 그 과정을 통해 사회봉사도 충실히 했으며 학생들에게 현실을 전달할 수 있었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趙교수는 재임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관악으로의 캠퍼스 이전사업을 꼽는다. 당시 핵심적 역할을 했던 趙교수는 『대학에 봉사할 절호의 기회였다. 어느덧 굵직하게 자란 교정의 플라타너스를 보며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면서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趙교수는 앞으로 후학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정리＝安興燮 기자〉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黃聖明교수
치대·치의학

『건강이 좋지 않아 정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 했는데 동료 여러분의 도움으로 소원을 이루게 됐습니다』

오묘한 진리의 뜻은 전공과 관계없이 같은 것이라며 자신의 학문관을 넌지시 비추는 黃교수는 55년 치의학과를 졸업하고 61년 전임강사로 부임한 이래 구강해부학 분야에 9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탁월한 업적을 쌓았으며 대한구강해부학회장 및 모교 치과대학도서관장을 지내면서 후진양성과 연구에 평생을 바쳐왔다.

『3년전 심장병으로 모교병원에 입원했을때 문병왔던 제자들과 교직원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좋은 사람들이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시종 강조하는 黃교수는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후학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요즘 학생들은 과거에 비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므로 그만큼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항상 새롭게 대하는 자세로 학문연구 개발에 맹진할 수 있게 건강에 유념하라』며 애정어린 충고를 잊지 않았다.

알콜램프없어 화롯불로

羅雲龍교수
약대·제약학

『앞으로도 일주일에 두세시간정도 시간강사로 일할 계획이므로 대학을 떠난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

53년 약대를 졸업, 그해 약대 조교를 시작한 이후 줄곧 모교에 재직해온 羅교수는 재직중 약학도서관장 및 약학대학장을 역임하면서 대학의 발전에 기여했으며 무기약품제조학과 방사선약품학 분야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일본 덕도대학과의 학술교류협약 체결로 약학대학 국제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예전에는 알콜램프도 없어 숯이 담긴 화롯불로 실험을 하고 책을 구하기 힘들어 남의 책을 손으로 베끼면서 공부했다』며 후학들에게 『이제 좋은 환경속에서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날그날에 충실하자는 마음가짐으로 평생 연구에 몰두, 늙는 줄도 모르고 살아왔다는 羅교수는 후배교수들에게 『사회에 좀더 공헌하고 협동하는 생활태도가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신입회원(1천1백22명)

學士

人文大學

▲국어국문학과
한승오 박종영 김형균 김형규
한상호 안창현 한덕환

▲중어중문학과
김남주 김성호 남정탁 박창민
이승용 이승훈 한 승 조성일
최정윤

▲영어영문학과
김용빈 강인규 윤성미 최아정

▲독어독문학과
남희용 이재영 최종진

▲노어노문학과
하윤수 김명호 이동렬

▲서어서문학과
박종석 이영호

▲언어학과
오세범 박세환 주영진

▲국사학과
김봉열 박용준 신진섭 오창호
이효동 진경미

▲동양사학과
김지로 박해극 최청우 이종필
정순길 전동현 부 신

▲서양사학과
김명윤 김원배 김찬식 조원희
이용성

▲철학과
김부창 박광호 정병원 임병욱
정병오 조우진 황동섭 양동우
이남식 조휘봉 김강호 박창우

▲종교학과
이광현 임재규 정택웅

▲미학과
김영덕 장호연 심재훈

▲고고미술사학과
백운국 신준형 구정은 김지영
구하원

社會科學大學

▲정치학과
조유식 최강문 양희근 여치헌
유원영 김현성 조민욱 박성훈
이종혁

▲외교학과
안성호 김봉기 김학묵 김정한
김현정 임상범 최필선 그 리

▲경제학과
박성준 신용석 박상철 이기영
이기훈 이영삼 이훈기 최현철
김미섭 김영규 박대산 신원준
왕정균 조 호 이병도 최상현
최지수 김인식 김봉기 김소영
김형석 최종연

▲국제경제학과
조영진 박정운 이철원 이위재
한윤덕 홍재철

▲사회학과
박창용 고경구 구자우 김재창
이동걸 이원순 김강민 김선균
김태현 김현우 신현기 정성진

▲인류학과
박재영 서수권 정종오 안승택

▲심리학과
조면식 류영수 윤 환 정해광
김상현 김정국 김지욱 전우배
김승현 주명훈 채호석

▲지리학과
정종호 안철승 김현수 남진만
김현호 양승봉 정영완 조현수
문봉섭 신명자

▲사회복지학과
김준태 정태인 조원섭 이원익

▲신문학과
박형진 찬동민 김유석 여동근
윤명호 박만영 송현주 최은희

經營大學

▲경영학과
김문수 양홍수 고종찬 김건우
신희상 이정헌 정갑석 정원용
정한신 조용은 서진식 오윤혁
이상훈 이인영 정이진 조현준
진보근 한범석 남태현 김승휘
김태욱 박천규 정창룡 김재욱
정상권 최주니 허종일

法科大學

▲사법학과
김소원 김형동 류해남 송석봉
황성식 박지현 성종모 송형석
정철승 한무회 노희정 문영진
박종현 이상균

▲공법학과
양기정 이종일 박경원 박경호
이기조 최광업 최남식 한승석
황승화 김성원 문일호 안상원
정문주 서정현 김경훈 김영식
김춘기 박세종 윤 석 이종래
이창온 임대호 장주봉 전진홍
조인제 조종현 한정화 워터스
김윤락

自然科學大學

▲수학과
김상범 남경필 이재국 윤지현

▲계산통계학과
이인묵 김보승 이성룡

▲물리학과
정동현 김만규 정남진 김건우
이성환

▲천문학과
정홍상 강신충 김성원 정종화
강태길 김원준

▲화학과
김웅천 김성태 문원섭 김성국
김지환 정성욱 정인권

▲생물학과
박승재 김혜성 원효식

▲분자생물학과
이정웅 원종우

▲미생물학과
이목영

▲대기과학과
최지한 류희석

▲지질과학과
김창병 박진성 지재동

▲해양학과
채영환 하원진

家政大學

▲식품영양학과
김영란 배예순 한영규 한 진

▲의류학과
임수희 임보란

▲소비자아동학과
최화정 차정민

工科大學

▲건축학과
이장수 조지현 문원태 김성곤
예태곤

▲공업화학과
박철수

▲금속공학과
이충표

▲기계공학과
김대기 최태열

▲기계설계학과
이승환

▲산업공학과
김세명

▲섬유고분자공학과
전규선 서상철 최재호 박덕균
송 욱 이광주

▲무기재료공학과
강희찬

▲원자핵공학과
설재춘

▲자원공학과
김채권 정진수

▲전기공학과
강봉주 민효식 하 준 이영준

▲전자공학과
김기현 양희송 김준래

▲조선해양공학과
김진혁 류홍열 이동윤 전승호
김재현

▲토목공학전공
양지영 조권현

▲항공우주공학과
김명철 오문섭 정준화

▲화학공학과
가제순 최석우

▲제어계측공학과
은용순

▲컴퓨터공학과
정문구 송관섭

農業生命科學大學

▲농학과
임문환 최대찬 문상준 성시경
강상호

▲원예학과
김충범 심위택 조윤섭 권기철
민선홍

▲산림자원학과
한장규 조철회 김광신 신윤철

▲임산공학과
한기수 김정탁 박용균 설두환
성명호 이상귀

▲농화학과
김태우 손동하 이승민 이제호

▲식품공학과
신원수 반명문 김상국 조승현
이경훈

▲농경제학과
김기태 이주한 김현태 이규섭
이재홍 최진백 이세환

▲동물자원과학과
정봉화

▲식물병리전공
박지현 박인현

▲응용곤충전공
노수경 장경섭 김세용 홍영일

▲농업토목전공
이민호

▲농업기계전공
이종원 김규식 김동석 장운석
이재욱

▲농가정학과
김영은

▲농업교육전공
장영진 전수철

▲농촌사회교육전공
김환국 한동일 박석영 윤재명

▲조경학과
서동욱 안수연

美術大學

▲동양화과
최혜인

▲서양화과
임채일 윤혜성

▲공예과
박수연 장 환

▲산업디자인과
민병관 류지훈 백성희 임진아

音樂大學

▲성악과
김미현

▲작곡전공
김성준

▲이론전공
박성준 김영식

▲피아노전공
박규영 성경하 정경아 진우경

▲현악전공
조영호 석유선 윤여은

▲관악전공
함복주 민병덕 이정헌 서화정

▲국악과
이경화

師範大學

▲교육학과
임종범

▲국어교육과
김은주 박정남 유동엽 이상호

▲영어교육과
임기현 강태욱 김이사란

▲불어교육과
김경호 권계영

▲독어교육과
송호석

▲사회교육과
전준호 정현규 이은영 김유현
조금희

▲역사교육과
김승호 박미선

▲지리교육과
김봉수 이춘백 이태규 이영아
김종민

▲국민윤리교육과
배상훈 이선희 이승희 이종복
한 산

▲수학교육과
이열수 남승진 김양수 김용수
이길선 이현주 조영미

▲화학교육과
윤보홍 조영순 최경숙

▲지구과학교육과
강진철 제귀연

▲체육교육과
김우석 안홍선

看護大學

▲간호학과
박정아

碩士

文學

김남기 왕커췐 강삼회 이병호
김민정 오숙화 정대진 조미영
하귀녀 고바야시 신주리 이영섭
이정훈 박시영 손나리 김성오
박강순 안수진 이일수 정소영
조선정 조성기 황재환 이재호
지정민 이대식 조운일 판카치
강성천 노영구 정송교 이한상
류준범 박수철 박봉주 윤우식

20萬同門이 즐겨 읽는 同窓會報에 廣告로 企業을 PR합시다.

廣告問議電話 702-2233(代)

1976. 4. 13 登錄番號(서)라-137號
1988. 11. 9 第3種郵便物(나)級認可 第199號

입회를 환영합니다

이동기 송세영 송은우 양선이
최영준 김윤성 김철성 양효실
임혜은 박인호 윤여령 이연정
신윤호 문기은 양재영 진필수
김지은 조창현 남기포 박선엽
노혜정 문미성 오상학 진종헌
최승훈 정익중 문영두

政治學

김유미 이남주 강동호 조희천
마상윤 문유미 박성우 양정호
최진백 하동완

經濟學

장종회 강삼모 신동석 이종철
강창희 박규호 박기호 조중용
이서원 홍승지

經營學

김영주 김상철 최창식 윤지명
강명찬 김태형 안 섭 오종암
이동일 이준엽 김광윤 김선규
김태호 김한승 박재범 배상현
서유석 유인금 윤병길 이성은
정도영 조희경

法學

고태관

理學

김태훈 김홍익 나원택 류명선
문승언 차희돈 정 희 표태수
임재승 박정호 이지은 조형민
이선영 이은정 구미선 김영현
조준수 조윤호 임 철 김동욱
김정민 양판석 이재일 이정호
윤인택 양미라 남동우 오정순
윤상선 최병주 임종태 노정심
지혜경

藥學

김정민

工學

김승욱 박상태 전형중 박형수
유수현 장창선 박권규 박석배
권영식 박영호 손 훈 이정진
홍동곤 문상무 박진태

農學

강진호 차재철 최형태 최유환
오원덕 정세용 이윤구 용정식
장민석 이광근 김정우 박주헌
이승수 함주상 강효중 이홍식
서정훈 오승봉 손 방 한성민

獸醫學

문규환 서광원 도선길 박형서
정기명 홍성혁 최순철 남기환
서승희 송성옥 오세철

美術學

강보경 한수정 조은정 공성훈
구자영 박주혜 조정원 허보윤
김송이 서병주 이지숙

音樂學

이혜경 김규동 김미경 문수연
이윤경 정은미 권도희 김지혜
김현정 박가숙 박선영 박성희
변계원 원영실 이수미 이정화
장희선

教育學

권효숙 신종호 여보현 김성기
심성옥 정혜진 한기철 전상훈
김은설 오상희 정현미 최지혜
배영주 신나민 고은정 이경언
조용진 정병구 김형철 지라폰
김성진 이경미 김호정 이경애
김현진 황미숙 박규열 오기성
최현호 김수미 신인아 노원경
이승희 주 영 한재영 임 혁
신윤아 곽영순 이경식 김진효
서희진 이정주 조기범 박준호
권민혁

醫學

이지은 백희종 권수인

看護學

김영미 박미성 박연환 이명숙
조문수 한혜라

齒醫學

유종희 박기웅

博士

保健學

이성수 이홍재 김용은 강재헌
신순애 박정욱 엄승섭 이은표
주혜경 강종원 나숙자 박은옥
홍인정 엄태환 허태웅 이숙경
최기운 윤선경 정주용 박종태

行政學

박동제 심상돈 박용신 박정열
정홍근 김남성 김준상 이계문
송홍석 이석원 임형도 김영생
김윤상 양지우 차성덕 이철효
백남철 신동헌 진광성 박진호
안은주 이승은 이주행 정보경
조대식 최백철 조병수 이경욱
김규원 김유정 배웅규 이기철
김양희 김원주 김인성 김재현
김현수 박종구 서은희 양수정
우용림 정용석 조유주 최정아

文學

김정우 한영균 김성규 김주필
박금자 권성우 배주채 이익성
박경주 이종묵 송영정 박종한
이진국 서유석 김문규 김문수
김보원 이차훈 김진식 박세곤
이규현 정희경 이덕형 노혁남
김세중 문순표 우순조 신효필
박광용 김용곤 서의식 정연태
강봉룡 김유철 이승휘 박순준
이채욱 최봉대 백욱인 구도완
김창민 정영숙 구정숙 홍장희
백종민 황숙연 김인숙 손병우
박용규 이주리

哲學

정연근 허남진 염수균 김영배
박영태 이선일 한상철

政治學

류근일 김주홍

經濟學

이한주 송정환 전병유 주익종
남기곤 복득규 한헌구 류동민
김갑용 최태동

經營學

서병덕 방승욱 이상우

法學

우성기 신운환 정태윤 김창록
오문완 임동규

理學

김주선 김태공 정덕길 권용만
박유용 김규성 박강호 김찬주
김한철 박태선 신종철 최윤석
정한승 노정래 박용철 엄수현
강태섭 김경규 김태삼 황광연
이행순 황미숙 조형택 유영한
김영호 박상익 서진영 이종수
이영철 김명운 민홍식 차기원
최헌수 이호영 이태신 오상희
윤석훈 이철우 정회수 김성란
이진희 이정순 이난형 정명숙
최영희 신혜원

藥學

신동인 홍준희 전라욱 한정희
김강석 복진우 윤혜란

工學

정태용 김도년 안홍섭 이찬식
장성수 최응규 최기현 이종민
전승준 정형태 김재홍 양준규
전유찬 최정옥 강수영 김사량
전우평 박병규 이대영 강경태
이병준 임병진 김성걸 장인배
김병희 주상백 정호연 주종혁
홍현필 류원석 김범준 엄성일
이준석 임재봉 정호규 박봉모
박승익 이종호 조해석 정대욱
신재곤 정범진 김학수 이연규
황인호 신성렬 이기철 홍순흡
구자춘 김상훈 박용규 이성규
김광호 김용상 태흥식 홍기란
진상규 김종효 이성준 이우형
최홍섭 김진영 방승찬 임일택
김병일 서용석 홍사영 강관수
김명모 백신원 양승우 주 철
오영민 윤성용 조대연 조홍연
성기원 백기영 최성만 유정열
백진수 김민홍 김지현 최미애
김경숙 장태정 이준화 조혜경
박태형 이홍호 박향재 최 건
김종완 백선욱 정성태 김판구
서수원

農學

정해붕 예병우 김신제 이창재
정도현 조재창 이상모 허철성
김원호 곽병오 이상룡 진병래
이승환 난디할

教育學

서우석 양승춘 이재기 박행모
정기혜 이차영 최성욱 김창원
임진수 정병욱 김한종 김 각
김해성 최경환 심연수 권석원
정현태 김혜경 유준희 박진희
박홍균 기한준 신호수 허정식
오정석

獸醫學

김학엽 강동묵 정자영 서일복
한범석

醫學

김효수 한종원 박성수 서철원
조재일 황도영 김미경 이병무
정진명 조철구 주명수 김동욱
김영휘 명나혜 민학진 박상규
신보문 오덕자 원용순 유 권
이기재 임동락 이영철 이인식
이지호 조문준 홍순관

看護學

김희자 오복자 박영임 엄영란
전명희

齒醫學

박 진 김명수 김종훈 송명구
안종경 오현주 최종호 함진숙
고성희 유정숙 유현미 이원규
이지영 정영택 정재균 김경년
김영균 김정호 노승학 류홍렬
이종철

保健學

조동란 박석환 어수미

行政學

이태종 이원희 박영미 박영철
소진광 조순철 김좌관

회비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理事 : 7월19~20·一般 : 7월20일〉

會長團

▲副會長 河永基 Ⅱ 1백만원

理事

◇工科大學

▲金 演(56)아주화금사장
▲金貞植(56)대덕전자회장
▲金炯璧(61)현대중장비사장
▲朴宜鉉(57)前풍림산업
▲朴仲鉉(57)서울대교수
▲成基榮(58)풍영화공사장
▲申勳澈(51)성우회관회장
▲安承逸(57)서해도서개발사장
▲李潤植(59)수자원공사사장
▲李玄九(64)(주)대우부사장
▲林吉生(59)동북건설사장
▲張起柱(58)(주)경방사장
▲丁庚鎭(57)종로학원장

◇農科大學

▲金秉煥(57)흥농종묘전무
▲沈完祚(61)덕은산업사장
▲李康世(62)선진콘크리트사장

◇文理科大學

▲高一男(60)前고려무역사장
▲孔鍾源(62)조선일보논설위원
▲金圭相(57)극동운수사장
▲金東燮(61)거양상사사장
▲金炯昨(71)국회의원
▲盧在植(57)환경기술개발원장
▲申禹植(57)한국영상자료원
▲元容大(53)(주)동보회장
▲李哲培(62)럭키금속전무
▲鄭鏞斗(57)한림대강사

◇法科大學

▲金榮秀(64)청소년문화연구소
▲金仁浩(66)철도청장
▲金許男(52)송도상고이사장
▲金孝榮(50)국회의원
▲朴泳俊(68)코리아리서치센터
▲朴濟贊(59)동양시멘트사장
▲朴泰緖(53)제일탄소회장
▲孫鍾奭(64)박람회조직위원회
▲宋彦鍾(60)前체신부장관
▲柳興洙(65)국회의원
▲田道學(55)우성프라스틱사장
▲全應瑨(57)유원건설고문
▲鄭璣浩(64)국회의원
▲鄭石謨(52)국회의원
▲崔錫旻(60)한아산업사장

◇師範大學

▲高俊植(55)구정중학교장
▲金寬泳(55)영동여고교장
▲金商俊(52)국정교과서이사장
▲金炫坤(63)현대학원이사장
▲朴鍾世(59)(주)코래드부회장
▲李鍾樂(62)교육부장학편수실
▲張基玉(61)前문교부차관

◇商科大學

▲金東喆(59)제일은행상무
▲金雄世(57)롯데월드사장
▲金種國(67)부안공용터미날
▲金埈成(42)대우그룹회장
▲文彦錫(58)세일중공업사장
▲朴贊文(57)금융결제원장
▲朴憲斗(64)대동기어사장
▲梁昇鉉(48)(주)경방고문
▲吳寓鉉(60)중앙투자신탁사장
▲元容勳(57)대림통상사장
▲柳遠榮(63)한국전자회장
▲林采柱(59)국세청차장
▲張基八(62)한일은행전무
▲韓瑾煥(64)두양금속사장
▲黃元五(60)前조폐공사

◇藥學大學

▲趙仁瀅(54)삼일화약사장

◇醫科大學

▲高桂煥(57)정형외과의원
▲孫光鉉(58)서울중앙병원
▲李學重(58)단국대교수
▲林南宰(63)임소아과의원
▲鄭鎭澤(50)정외과의원
▲韓東洙(65)신경정신과의원

◇齒科大學

▲金仁壽(51)동산치과의원
▲金暋九(50)남문치과의원
▲金 一(55)김일치과의원
▲金京愛(61)김경애치과의원
▲金吉泰(71)김길태치과의원
▲金炳基(67)김병기치과의원
▲金榮基(58)김영기치과의원
▲金潤永(62)자혜치과의원
▲金宗哲(66)세종치과의원
▲南東錫(65)서울대교수
▲閔丙德(70)정산치과의원
▲朴有年(74)박치과의원
▲白純之(69)백순지치과의원
▲夫三煥(64)부삼환치과의원
▲宋英鎬(61)송치과위원
▲梁精康(62)양정강치과의원
▲梁榮太(70)양영태치과의원
▲禹亨植(65)우치과의원
▲尹斗重(75)윤두중치과의원
▲尹漢晳(64)윤한석치과의원
▲尹興烈(65)상아치과의원
▲李美代(69)현대치과의원
▲李壽久(72)이치과의원
▲李正浩(66)이정호치과의원
▲李昌熙(53)이창희치과의원
▲任徹中(67)임철중치과의원
▲張相憲(65)장상헌치과의원
▲鄭鍾平(69)서울대교수
▲朱寬哲(65)의당치과의원
▲韓應烈(65)한응렬치과의원
▲洪性虎(66)홍성호치과의원
▲黃圭宣(60)황규선치과의원

◇大學院

▲南惠祐(56)산학협동재단회장
▲安武赫(62)한국발전硏이사장

◇經營大學院

▲金潤澤(70)대광산업회장
▲金任植(70)동의대재단이사장
▲金泓植(71)금복주·경주법주
▲馬雄豪(69)녹십자의료회장
▲朴正男(74)(주)신한부장
▲元榮鍾(75)화인기계사장
▲柳敏喆(72)고려여행사사장
▲李相善(68)(주)경방감사
▲李逸均(71)명지대교수
▲全鎔秀(68)인하대교수
▲韓京鎬(67)새마을금고감사
▲韓宗德(70)외환은행지점장

◇敎育大學院

▲金炳斗(65)강원도교육감

◇保健大學院

▲宋京燮(71)국립의료원부장
▲申碩釪(67)국립의료원
▲禹世鴻(68)서울보건전문대
▲全金子(74)前대한간호협회장

◇司法大學院

▲康允豪(70)변호사
▲金道彦(64)대검찰청총장
▲金鍾求(66)법무부차관
▲金祖植(69)변호사
▲爵勝行(65)변호사
▲文鍾洙(64)변호사
▲石容鎭(67)변호사
▲宋宗義(65)대검찰청차장검사
▲申明均(69)서울고법부장판사
▲申昌彦(76)헌법재판소재판관
▲安鍾赫(63)변호사
▲吳福東(64)변호사
▲鄭京植(65)헌법재판소재판관
▲朱光逸(70)인천지검검사장
▲崔炳國(70)법무부기획실장
▲崔永光(67)서울지검검사장
▲崔英哲(65)변호사
▲黃相九(66)대구고검검사장

◇新聞大學院

▲金太文(73)쌍용그룹연수원장
▲尹壬術(69)前부산일보사장
▲李根洙(69)대우투자자문사장
▲李俊佑(75)소년조선일보국장
▲黃榮一(72)극동방송상무

◇行政大學院

▲金利煥(70)희성관광개발사장
▲金鍾仁(64)동영알루미늄사장
▲金柱鳳(77)공항공단이사장
▲金漢坤(71)前농림수산부차관
▲都明正(73)강서구청장
▲文喜甲(66)前국회의원
▲申基嶽(66)(주)세풍부사장
▲申瑞雨(63)(사)체우회회장
▲申鉉守(70)신용기금이사장
▲尹鎰均(69)대한항공협회장
▲李大淳(73)前체신부장관
▲李孝桂(68)내무부차관
▲林敬鎬(65)내무부차관보
▲張承台(61)진로그룹고문
▲鄭旻謨(67)(주)해외선박회장
▲曺相鎬(65)신원월드회장
▲趙性瑾(61)前건설부장관

◇環境大學院

▲李在億(77)도화기술公전무

一般

◇人文大學

▲배영수(88)

◇社會大學

▲이건희(77)

◇經營大學

▲손병욱(85)
▲이형일(86)

◇工科大學

▲강성안(62) ▲김정배(55) ▲박상집(82) ▲신춘식(61) ▲장홍규(58) ▲조홍균(57) ▲이경원(66) ▲조인수(68) ▲황보한(60)
▲경상현(56) ▲김춘길(62) ▲박신하(68) ▲이규웅(65) ▲조수길(57) ▲손 식(62) ▲이신옥(56) ▲최종근(89) ▲홍용남(71)

◇農科大學

▲김훈동(69) ▲백정기(72) ▲유대식(62)
▲박순직(71) ▲신정재(63) ▲최무재(59)

◇文理科大學

▲김동호(70) ▲박일성(61) ▲여성국(67) ▲이해남(70) ▲장정환(63) ▲조운제(57)
▲박대일(69) ▲서연호(61) ▲오근영(65) ▲임성기(66) ▲정연국(68)

◇法科大學

▲이종관(45) ▲강신경(61) ▲박순용(68) ▲변광순(58) ▲유근원(67) ▲이원택(61) ▲장유석(65) ▲추영일(65)
▲강 용(65) ▲김학대(70) ▲박희건(63) ▲양재덕(66) ▲이수길(66) ▲이인표(58) ▲최상태(64) ▲황학중(71)

◇師範大學

▲권호렬(60) ▲김학로(60) ▲이영백(62)
▲김대행(65) ▲신동철(63)

◇商科大學

▲고인석(64) ▲구명준(68) ▲권오경(70) ▲배순직(66) ▲위계신(58) ▲이호성(74) ▲조문제(65) ▲홍용찬(72)
▲김배철(50) ▲구본영(70) ▲박욱근(74) ▲손수일(65) ▲이종범(65) ▲정상철(66) ▲조재열(74)

◇獸醫科大學

▲박근하(80)
▲이각모(69)

◇藥學大學

▲조내규(62)

◇醫科大學

▲장운삼(49) ▲박철규(67)
▲노만수(78) ▲박희백(57)

◇齒科大學

▲박기호(58) ▲천옥경(81)
▲정성창(67) ▲최경명(59)

◇行政大學院

▲연기호(70)
▲장석원(61)

會費납부에 솔선하는 精誠을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年會費가 순조롭게 入金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정성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비는 1년에 한번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회비는 同窓會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사업과 母校支援에 유익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되도록 앞당겨 내셔서 동창회 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費內譯 및 지로番號―

- 一般會費/ 2만원
- 理 事/ 7만원
- 常任理事/ 20만원
- 監 事/ 30만원
- 副 會 長/ 50만원(公職者) 1백만원(一般)
- 會 長/ 5백만원

會費入金지로번호 및 郵便對替 번호
- 지로번호 7500875
- 우편대체번호 010017-31-0621565

新刊

■ 우리는 신이 아니다
—金光雄외 4인 教授散文集

「학문과 삶」이라는 주제로 교수 산문선을 발간하고 있는 서울大출판부에서 그 여섯 권째로 행정대학원 원장 金光雄교수를 비롯하여 醫大 金勇一, 藥大 沈昌求, 人文大 鄭鎭弘, 齒大 崔翊默교수의 에세이를 모아 엮은 散文集이다.

행정학 전공에서 의학, 약학 그리고 종교와 치의학에 이르는 전문성이 각기 다른 교수들의 정신생활과 생활철학의 일면을 엿볼 수 있을 뿐더러, 대학문화가 전문적 지식의 전달과 전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유익한 散文集이라 여겨진다.

〈서울大출판부刊 값 4,500원〉

■ 정치사회화
—李順炯(母校家政大교수)著

「사회인지와 현실참여」라는 부제를 붙여 출간한 이 책은 청소년들이 사회의 정치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認知하며 실제로 정치현장에 어떻게 참여하는가에 대한 실체를 서술하고 청소년들의 사회적 평등, 도덕적 갈등, 민주 갈등상황의 추론을 통해서 정치참여의 이유를 심리학적 틀을 가지고 그 과정을 추적한 저서이다.

〈서울大출판부刊 값1 만원〉

公演

■ 서울마스터즈 연주회
—10월 24일 예술의 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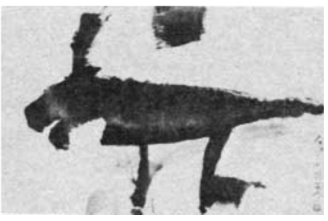
89년 창단한 현악 4중주단이 가을을 맞아 아홉번째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연주력과 음악에 대한 진지한 자세로 호평을 받아온 서울마스터즈 멤버들은 각자의 개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앙상블속에 존재하는 조화미를 격조높게 이끌어가고 있다. 첼로를 바탕으로 바이올린을 제일 위에 안착시키는 삼각형의 고전적 구성을 추구하는 이들의 音感은 매우 진지하고 풍요롭고 미려하다.

展示

■ 李珉柱「虛와 實」個人展
—10월 3일 갤러리 이콘

80년대 美大卒, 대학원에서 東洋畵를 전공한 女流畵家인 李동문은 미시간대학에서 잠시 수학한후 작품활동에 전념해 왔다. 독일, 스페인등지에서 개인전을 가진 이래 왕성한 의욕으로 각종 단체전을 비롯 국제교류전에도 출품하여 인정을 받았고 국내에선 한국미술문화대상전과 서울미술제에서 특선을 받는 등 촉망받는 화가중의 한 사람이다.



특이한 작품세계를 이룩하고 있는 이번 개인전에는 「虛와 實—생명의 조건」연작에서 자신의 視覺言語를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과 같은 근원적인 문제들을 탐구하는 도구로써 그림을 형상화시키고 있다.

총동창회·국민제휴카드

개인특전

本會 사무처에서는 지난달 회보와 함께 「서울대학교총동창회·국민신용제휴카드」신청서를 동문들에게 발송했다. 이후 本會와 국민카드 담당자들에게는 발급여부를 알고자 하는 동문들의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이에 本報에서는 특히 동문들이 궁금해하는 여러가지 특전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 전

(1) 개인

①학자금 대출 서비스：本 카드 소지자가 1년간 카드이용 실적이 50만원(현금서비스 제외)이상이며 총동창회 추천을 받았을 때는 카드를 발급받은 국민카드 각 영업점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액은 입학금을 포함해 대학교 등록금 범위내에서 5백만원까지이다. 재학생 본인이 신청시는 연대보증인이 입보해야하며, 자녀 학자금일 때는 신청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봉급생활자인 경우 무보증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은 5년 이내에 원리금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②협력업체 특별서비스：특별서비스는 1차로 7개호텔에서 〈표〉와 같이 시행되고 있으며 2차로 병원등 의료기관 및 콘도등 여행업체, 백화점등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호에 계속〉

〈표〉 서울大人을 위한 협력업체 및 특별서비스

호텔명 (예약 대표전화)	소재지	이용구분	할인율	기타
그랜드 호텔 (064-47-5000)	제주	객실	주말:20%, 주중:30%	오라컨트리클럽 우선 예약
		사우나(투숙시)	50%	
		수영장	무료	
서울르네상스 (02-555-0501)	서울	객실	성수기:10% 비성수기:15%	3, 4, 5, 6, 9, 10월 1, 2, 7, 8, 12월
		식음료, 델리카트슨	10%	유니버설부페 정통양식당 노블레스제과
		가족행사·세탁	10%	
서울리베라 호텔 (02-541-3111)	서울	객실·사우나	20%	
		식음료·제과	20%	
유성리베라 호텔 (042-823-2111)	유성	객실	주말:20%, 주중:30%	
		사우나	20%	
		식음료	10%	
서울조선호텔 (02-771-0500)	서울	객실	성수기:10% 비성수기:20%	1, 2, 7, 8, 12월
		기타 부대서비스는 최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귀포파라다이스 (064-63-2100)	서귀포	객실	성수기:주말10%, 주중20% 비성수기:주말20%, 주중30%	3,4,5,6,7,8,9,10,11월, 12, 1, 2월
		사우나(투숙시)	50%	
부산 파라다이스 (051-742-2121)	부산	객실(사전 예약시)	30%	
		사우나 및 수영장(투숙시)	50%	
		식음료	찰리스10%, 랄릭20%, 제과20%	
경주조선 호텔 (0561-745-7701)	경주	객실	성수기:20% 비성수기:30%	골프 우선 예약
		식음료(투숙시)	10%	
		온천사우나(투숙시)	50%	
		부대시설(나이트클럽, 이·미용실)	20%	
웨스틴조선비치 (051-742-7411)	부산	객실	주말:20%, 주중:30%	
		사우나	50%	
		실내수영장	무료	

母校소식

치과병원 CT설치
8월부터 본격가동

모교 치과병원(원장 梁源植)은 최근 치과병원으로는 국내 최초로 전산화단층촬영기(CT)를 구입、설치했다.

지난달부터 가동된 CT는 임플란트 시술시는 물론 악성종양 검진、교정、악관절환자 치료시등 모든 임상과의 환자진료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수신규채용 계약제도입
재임용·승진기준 강화
정·부교수 3년뒤 정년보장 결정

신규임용되는 정·부교수에 대해 채용시 심사를 거쳐 정년을 보장하거나 임용기간을 3년으로 하는 「전임교수 임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8일 학장회의에서 확정됐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신규채용시 정·부교수에 대해 임용전의 교육업적, 연구경력을 심사하지 않고 정년을 보장한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시됐다.

따라서 내년부터 신규채용되는 정·부교수는 임용뒤 3년후에 연구업적 등을 평가, 정년보장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모교는 이에 따라 곧 신규채용할 예정인 40명의 교수중 부교수급 이상에 대해 정년보장없이 3년간의 계약제를 적용키로 하고 전임강사와 조교수의 신규임용에 대해서는 전과 같이 각각 2년·4년의 기간을 거친 뒤 재계약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공대 1백40명 증원
1백6개 모집단위서 5천45명 선발

95학년도 입시에서 공대의 모집정원을 올해보다 1백40명 증원하고 음대의 모집정원을 조정, 총1백6개 모집단위에서 5천45명을 선발키로 했다.

지난 5일 교무담당 학장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5학년도 입학고사 모집요강」을 마련, 학장회의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모집정원이 늘어난 학과는 모두 공대 소속으로 전기·전자·제어공학과군(25명)、기계·기계설계·항공우주공학과군(25명)、공업화학·섬유고분자·화학공학군(20명)、건축학과(15명)、토목공학과(25명)、조선해양공학과(5명)、산업공학과(10명)등이다.

음대의 경우 모집정원 1백75명은 그대로 두되 기악과 피아노전공、성악과의 모집정원을 각각 2명씩 줄이는 대신 작곡과 2명、기악과 관악전공 1명、국악과 이론전공 1명씩을 더 뽑기로 했다.

공대건축학과
건축전 개최

공과대학 건축학과(학과장 沈愚甲)는 1994년도 건축전을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공대 35동 전시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건축전은 4학년 졸업작품 42점、3학년 과제작품、대학원 찬조작품、과동아리의 다양한 작품 전시와 「비어있음에 대한 매력」(민현식)과 「도시·건축읽기」(정기용)의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기획부실장에
李正彬교수 선임

지난 8월 29일자로 신임 기획부실장에 李正彬교수(의대 의학과)가 임명됐다. 신임 李부실장은 72년 모교 의대를 졸업、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그동안 의대에서 법의학분야 연구 및 교육에 전념해 왔다.

단백질대량생산
공대崔次鏞교수

기존의 생산공정보다 생산효율이 수십내지 수백배 높은 단백질생산 기술이 개발돼 인슐린과 인터페론 등의 의약품 양산길이 열렸다.

공대 崔次鏞교수(공업화학과)팀은 지난 6일 「인공세포시스템」을 이용한 단백질대량생산법을 개발、반응기 1ℓ당 무려 2백g에 달하는 단백질을 얻었다고 밝혔다.

기존의 공법으로는 1ℓ당 수g 수준에 그쳤었다.

본고사 시간단축
자연계 영어추가

모교는 95학년도 입시 본고사중 국어논술과 영어과목의 시험시간을 작년의 80분、1백20분에서 각각 60분、1백분으로 20분씩 줄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자연계의 영어과목이 추가되고 선택과목의 서술형문항비율을 20~30%씩 높이는 등 본고사시행 2년에 맞춰 전반적으로 보다 심화된 내용과 형식의 문제를 출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교의 본고사 난이도는 첫 해에 비해 상당히 높아질 전망이다.

모교는 최근 입시관리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5학년도 대학별 고사 출제 기본방침」을 확정하고 지난 1일 학장회의 등 의결절차를 거쳐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무부처장 劉丁烈교수는 『출제의 기본방향에 있어서 수험생들의 정확한 이해·응용능력과 논리적 서술능력평가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치과대학
의료관리학신설

치과대학(학장 李種昕)은 내년부터 치과의료관리학을 신설한다.

李학장은 『치과의사를 둘러싼 사회환경의 변화가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응할 치과의사의 역할이 새롭게 대두되어 이 과목을 신설하게 됐다』며 여기서는 치과개원시 필요한 경영관리의 제기법 등 치과의원 관리학은 물론 치과정보학、치과보험학 등을 가르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대는 앞으로 치과의사들이 치과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욕구와 치의학발전에 따르는 전문화·조직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치의학 지식과 기술 습득에 우선적으로 충실해야겠지만 치과서비스와 관련된 주변환경、제도、사회적 요구에 대응할 능력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대 덴탈오케스트라

치과대학 관현악단 덴탈오케스트라(단장 공형규、지도교수 崔翔默)의 제20회 정기연주회가 지난 8월 30일 리틀엔젤스 예술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휘에 劉榮宰(80년 음대卒·서울 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 객원지휘)、협연에 강민정、치과대학동창회(회장 李春根)후원으로 열리게 된 이번 연주회는 73년 1회연주회를 시작으로 어느덧 20회가 되어 치과계를 대표하는 성숙한 단체로 발돋움했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바그너의 「뉘른베르크의 명가수」전주곡 C장조와 모짜르트 바이올린협주곡 제3번 G장조、드보르작 교향곡 제9번 E단조 「신세계교향곡」등이 연주됐다.